전라북도 이전대상기업의 수요 및 실태조사

2007. 3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연 구 진

연 구 책 임　　나 상 균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원　　이 준 수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기업유치는 고용증대 및 인구의 유입을 초래해 지역인구가 증가되며 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하여 고용과 생산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됨

○ 전라북도에서 수도권 및 외국기업을 전라북도에 이전하기 위해서 세제, 금융, 개발사업 등의 지원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나 전라북도에 이전한 기업의 수는 소수에 불과

○ 기업이전을 지원함에 있어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 등 단기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보다 장기적으로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스스로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

○ 그러므로 기업의 전라북도 이전 수요 및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잠재적인 지방이전 수요와 이전에 따른 애로사항,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 기업이전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대안 마련과 향후 전라북도 기업유치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제공되어야 함.

○ 기업이 전북에 이전하는 이유, 잠재적인 이전수요의 발굴, 기업이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분석함으로써 이전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지원제도와 현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범위로는 공간적으로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을 비교 분석하여 전라북

도의 투자환경을 조사, 분석 실시

○ 국·내외의 통계보고서, 논문, 인터넷 등에서 각종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국·내외의 기업유치 사례분석, 기업유치와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제도 등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개선방안 제시

○ 또한 유치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전라북도에 이전한 기업의 이전동기, 만족도 및 투자인센티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와 실무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라북도 기업유치의 대안을 모색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특성별 문헌조사, 통계분석, 면담 및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방법을 채택

○ 전라북도 지역적인 차원에서 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 입지분포 및 특성을 분석하였고, 전라북도에 투자된 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투자지원제도, 경영여건에 관련된 설문을 조사하여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및 입지형태 파악

3. 연구결과 요약

1) 전라북도의 제조업 특성 및 산업단지 현황

○ 전라북도 제조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은 2003년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규모(5~20명)기업과 중기업(100~299명)의 규모를 가진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반면 300명 이상의 대기업의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84.4%로 국가산업단지가 75.7%, 지방산업단지가 94.5%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산업단지는 거의 100%에 근접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근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기업입주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전라북도에는 33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있고, 5개의 농공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537개 사업체에 9,288명이 고용되어 있고 농공단지의 분양율은 98.1%를 보이고 있음

2) 지역별 유치업종

○ 1995~2004년의 각 시·도의 불변생산액의 추이에 의하면 전주시 0.8%, 군산시 13.1%, 익산시 7.4%, 정읍시 1.9%, 남원시 8.6%, 김제시 13.9%, 완주군 19.4%, 진안군 11.9%, 무주군 8.5%, 장수군 20.7%, 임실군 6.4%, 순창군 15.4%, 고창군 12.3%, 부안군 14.5%의 성장률을 보임

○ 전라북도의 산업집적지로는 전주시의 화학제품, 전기·전자기기분야, 군산시의 화학제품, 제1차금속, 금속제품, 자동차 및 수송장비 분야, 익산시의 화학제품, 제1차금속, 금속제품,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및 수송장비 분야, 정읍시의 화학제품, 제1차금속,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및 수송장비 분야, 김제시의 화학제품, 제1차금속, 자동차 및 수송장비분야, 완주군의 화학제품,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및 수송장비 분야로 파악 됨

○ 지역별 산업집적지 중 성장성과 생장성이 높은 산업으로는 정읍과 완주의 화학제품, 군산과 김제의 자동차 및 수송장비, 정읍의 일반기계 분야로 분석

○ 권역별 기업유치 업종을 살펴보면, 전주·완주권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북발전의 핵심거점으로 행정 및 중추관리 기능, 농업생명산업 연구개발 및 첨단부품·소재산업 등의 첨단산업의 중심지, 지식기반 서비스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유치가 필요

○ 군산·익산·김제(일부)권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의 교두보확보를 위한 부품소재, 식품산업, IT산업 등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에 관련된 기업의 유치가 필요

○ 정읍·김제·고창·부안권은 생태영농, 복합휴양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형 첨단생태농업 및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임실·남원·순창권은 식품산업과 전통문화권을 형성하여 문화체험 관광기능, 전통적 지연산업 육성과 내륙거점의 역할을 수행

○ 무주·진안·장수권은 동부산악지역을 스포츠·레저를 중심으로 한 산악청정, 관광레저 및 휴양의 거점을 육성하고 고랭지기후의 청정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 농업특산물 생산지역으로 중심도시권과의 연결성 제고를 위한 교통체계구축하고 한방, 청정식품, 가공 산업 등을 육성

3) 이전대상기업의 수요실태분석 및 전라북도의 입지환경조사

○ 타지역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결과 현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된 첫 번째 요인으로는 판매시장의 근접성(33.3%)과 저렴한 분양가(22.2%) 있으며 두 번째 요인으로는 노동력확보 용이(27.8%)와 기반시설(16.7%)이었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기반시설과 보조금으로 나타남

○ 이전을 고려할 경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저렴한 분양가, 노동력확보용이성, 물류를 위한 교통편리성, 이전할 지자체의 세제지원 및 보조금 우대정책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전라북도가 기업유치활성화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항목으로는 저렴한 분양가, 노동력확보의 용이성, 교육 및 문화시설이 준비된 쾌적한 환경, 투자이익, 지역민들의 기업우호적인 환경 등으로 조사

○ 전라북도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갖추어야 할 인프라 1, 2순위는 물류 및 교통편의성으로 기업들은 물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순위는 통신시설로 파악

○ 전라북도내의 이전업체와 이전유관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입지환경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생산환경의 안정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정하였으며 판매시장/협력업체의 근접성이 그 다음으로 선정됨. 그 외 기업의 기술지원, 산학협동 등 무한경쟁시대에 기업생존을 위한 경영정보 제공을 중요하게 고려

Ⅱ. 정책적 시사점

1) 이전대상기업의 실태조사에 따른 시사점

○ 전북이전 기능기업과 파트너쉽 강화,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유치전략의 수립, 맞춤형 기업지원 시스템 정비, 부품·소재 식품 등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업유치, 우수한 투자여건 이미지 창출 및 홍보 등을 고려

2) 전라북도 산업입지 환경에 따른 시사점

○ 복합형 산업단지 조성, 전략 및 첨단 산업 혁신클러스터의 구축,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를 통한 활성화 지속추진, 인프라 시설구축 방향으로는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폐수종말처리시설, 철도, 항만, 공항 등

3) 유치기업의 사후관리 서비스운영

○ 전북지역에 기 유치된 기업에 전담자를 배정하여 분기별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모니터링 및 해결하도록 하거나 일정기간동안 기업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정착

4) 프로젝트 매니저 중심의 유치체계 구축

○ 현행 원스탑(one-stop)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짧은 기간동안 투자가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제공하기 위해 투자가가 사업을 고려하는 단계부터 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전담하여 투자의 전과정을 밀착지원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

5) 기업유치 환경관리 시스템정비

○ 전라북도에 위치한 기업들은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환경규제관련 법규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지나친 지도단속의 완화할 필요성 제기

○ 세계 각국은 신 보수주의 물결과 함께 각종 규제완화정책을 도입하여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는 실정이기에 전라북도 역시 기업환경과 경제성의 조화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6) 제조업중심의 보조금지원형태 탈피를 통한 유치영역 확대 추진

○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을 위해 설정한 규모나 범위가 지나치게 크며 요구 조건 등도 현실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설정이 필요

○ 현재 제조업만을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을 서비스업, 영화산업, 관광산업 등으로 확대시키고 물류시설, 연구소, 사업장, 대학 등의 부속시설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7)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 기업유치를 위해 재정지원, 조세감면, 간소화된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인센티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주하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장입지 지역의 삶의 질, 교육 및 연구기관의 근접성, 문화기반시설 등 생활환경 지원제도나 서비스의 구축이 선행

8) 산업클러스터 육성

○ 기업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자유촉진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행정관리 뿐만 아니라 고도 기술수반 사업의 전략적 투자유치에 있어 조세인센티브 또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보다 고도기술단지 등의 투자자유지역의 조성이 더욱 효과적

○ 전라북도 지역이 풍부한 인력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전라북도를 R&D 및 비즈니스의 주요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투자하고 전북지역만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클러스터 형성정책으로 전환

9) 투자기업의 선택

○ 기업의 M&A형 투자보다는 공장시설형투자를 유치하여 생산시설 신설 및 고용창출의 파급효과를 나타나게 해야 함

○ 지역특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정산업개발, 즉 전북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육성을 유도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매력요인을 높임

○ 전라북도가 직접 외국인투자기업의 파트너가 되어 SOC프로젝트개발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개발의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제 목 차 례

제1장 서 론 ····· 3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4

제2장 기업유치 현황분석 ····· 9
제1절 산업현황과 발전추이 ····· 9
1. 제조기업의 일반적 현황 ····· 9
2. 전북 제조업체의 부가가치에 대한 공간구조 ····· 14
제2절 기업유치 현황 ····· 15
1. 연도별 이전기업의 수 ····· 15
2. 권역별 이전기업의 수 ····· 16
제3절 기업유치의 필요성 및 효과 ····· 17
1. 기업유치의 필요성 ····· 17
2. 기업유치의 경제적 기대효과 ····· 20
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현황 ····· 26

제3장 지역별 유치업종분석 ····· 47
제1절 불변생산액추이에 의한 분석 ····· 47
1. 전주시 ····· 47
2. 군산시 ····· 48
3. 익산시 ····· 49
4. 정읍시 ····· 50
5. 남원시 ····· 51
6. 김제시 ····· 52
7. 완주군 ····· 53
8. 진안군 ····· 54
9. 무주군 ····· 55

10. 장수군 ····· 56
11. 임실군 ····· 57
12. 순창군 ····· 58
13. 고창군 ····· 59
14. 부안군 ····· 60
제2절 산업집적지 분석 ····· 61
1. 분석방법 ····· 61
2. 산업집적지 확인 ····· 61
3. 산업집적지 평가 ····· 63
4. 산업집적지 유형화 ····· 64
제3절 시·군별 기업유치 업종분석 ····· 65
1. 전주시 ····· 65
2. 군산시 ····· 66
3. 익산시 ····· 67
4. 정읍시 ····· 68
5. 남원시 ····· 69
6. 김제시 ····· 70
7. 완주군 ····· 71
8. 진안군 ····· 72
9. 무주군 ····· 73
10. 장수군 ····· 74
11. 임실군 ····· 75
12. 순창군 ····· 76
13. 고창군 ····· 77
14. 부안군 ····· 78
제4절 권역별 기업유치 업종 분석 ····· 79
1. 전주·완주권 ····· 79
2. 군산·익산·김제(일부)권 ····· 79
3. 정읍·김제·고창·부안권 ····· 79
4. 임실·남원·순창권 ····· 80
5. 무주·진안·장수권 ····· 80

제4장 이전수요기업 실태 및 조사 ····· 85
제1절 이전대상기업의 수요실태 분석 ····· 85
1. 조사개요 ····· 85
2. 결과 분석 ····· 85
3. 기업체 면담결과 ····· 94
4. 조사결과의 시사점 ····· 97
제2절 전라북도의 입지환경 조사 ····· 103
1. 자료 수집 ····· 103
2. 평가항목 및 기준설정 ····· 103
3. 계층설정 ····· 105
4. 상대적 중요도 결과 ····· 106
5. AHP분석 외의 설문결과 ····· 108
6. 시사점 ····· 111

제5장 결 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19
제1절 결 론 ····· 11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20
1. 유치 기업의 사후관리서비스 운영 ····· 120
2. 프로젝트매니저 중심의 유치체계 구축 ····· 121
3. 기업유치 환경관리 시스템 정비 ····· 121
4. 제조업 중심의 보조금 지원 형태 탈피를 통한 유치영역 확대추진 ·· 122
5.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 123
6. 산업 클러스터 육성 ····· 123
7. 투자기업의 선택 ····· 124

※ 참고문헌 ····· 129

※ 부 록 ····· 135

표 차 례

<표 2-1> 종사자 수 추이(전산업) ····· 9
<표 2-2> 종사자 수 추이(제조업) ····· 10
<표 2-3>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 11
<표 2-4> 전라북도 시·군별 제조업 사업체 수 현황 ····· 12
<표 2-5> 연도별 전락북도 이전 기업의 수(2001~2004) ····· 16
<표 2-6> 권역별 이전기업현황(2001~2004) ····· 17
<표 2-7> 2005년 상반기 대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23
<표 2-8> 기업유치에 따른 경제성 유발계수 ····· 24
<표 2-9> 투자액 100억원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 25
<표 2-10> 전라북도 산업단지 분양 및 조성단가 현황 ····· 27
<표 2-11> 전라북도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 ····· 28
<표 2-12> 전주시 산업단지 현황 ····· 29
<표 2-13> 전주시의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 ····· 30
<표 2-14> 군산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가동현황 ····· 31
<표 2-15> 익산시의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 32
<표 2-16> 익산시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 32
<표 2-17> 정읍시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 33
<표 2-18> 정읍시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 34
<표 2-19> 남원시의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 35
<표 2-20> 남원시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 35
<표 2-21> 김제시의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 36
<표 2-22> 김제시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 37
<표 2-23> 완주군의 산업단지 현황 ····· 37
<표 2-24> 완주군의 산업단지 조성계획 ····· 37
<표 2-25> 진안군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 38
<표 2-26> 진안군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 38

<표 2-27> 무주군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 39
<표 2-28> 무주군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 39
<표 2-29> 장수군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 40
<표 2-30> 장수군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 40
<표 2-31> 임실군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 41
<표 2-32> 임실군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 41
<표 2-33> 순창군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 42
<표 2-34> 순창군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 42
<표 2-35> 고창군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 43
<표 2-36> 고창군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 43
<표 2-37> 부안군의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 44
<표 2-38> 부안군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 44
<표 3-1> 전주시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 47
<표 3-2> 군산시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 48
<표 3-3> 익산시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 49
<표 3-4> 정읍시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 50
<표 3-5> 남원시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 51
<표 3-6> 김제시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 52
<표 3-7> 완주군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 53
<표 3-8> 진안군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 54
<표 3-9> 무주군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 55
<표 3-10> 장수군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 56
<표 3-11> 임실군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 57
<표 3-12> 순창군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 58
<표 3-13> 고창군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 59
<표 3-14> 부안군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 60
<표 3-15> 산업집적지 확인 결과(2004) ····· 62
<표 3-16> 지역별 산업집적지의 성장성과 생산성 ····· 63
<표 3-17> 지역별 산업집적지의 발전단계와 수준 ····· 64
<표 3-18> 전주시의 유망업종 선정 ····· 65

<표 3-19> 군산시의 유망업종 선정 ····· 66
<표 3-20> 익산시의 유망업종 선정 ····· 67
<표 3-21> 정읍시의 유망업종 선정 ····· 68
<표 3-22> 남원시의 유망업종 선정 ····· 69
<표 3-23> 김제시의 유망업종 선정 ····· 70
<표 3-24> 완주군의 유망업종 선정 ····· 71
<표 3-25> 진안군 유망업종 선정 ····· 72
<표 3-26> 무주군의 유망업종 선정 ····· 73
<표 3-27> 장수군의 유망업종 선정 ····· 74
<표 3-28> 임실군의 유망업종 선정 ····· 75
<표 3-29> 순창군의 유망업종 선정 ····· 76
<표 3-30> 고창군의 유망업종 선정 ····· 77
<표 3-31> 부안군의 유망업종 선정 ····· 78
<표 4-1> 쌍대비교 평가 매트릭스 ····· 104
<표 4-2> 쌍대비교를 위한 비교요소간 척도 ····· 104
<표 4-3> 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의 요소들의 중요도 산출결과 ····· 107
<표 4-4> 기업이전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도 산출결과 ····· 107
<표 4-5> 기업이전시 고려되는 요소의 중요도 ····· 108
<표 4-6> 설문대상자 전체에 대한 기업유치 우선순위 ····· 110

그 림 차 례

<그림 2-1> 연도별 전산업의 종사자수 추이(단위 : 명) ····· 10
<그림 2-2> 연도별 제조업의 종사자 추이(단위 : 명) ····· 11
<그림 2-3> 시·군별 제조업의 사업체 수 비교(1995년과 2004년) ····· 13
<그림 2-4> 2004년 각 시·군별 제조사업체 비율 ····· 13
<그림 2-5> 1995년 전라북도 제조업체 공간구조의 변화 ····· 14
<그림 2-6> 2004년 전라북도 제조업체 공간구조의 변화 ····· 15
<그림 2-7> 기업분류에 따른 권역별 이전기업 현황 ····· 17
<그림 3-1> 권역별 기업유치 업종 ····· 80
<그림 4-1> 설문대상회사의 수행업무 ····· 85
<그림 4-2> 현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된 요인 1순위 ····· 86
<그림 4-3>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된 요인 2순위 ····· 87
<그림 4-4> 단지에 입주하게 된 요인 2순위 ····· 87
<그림 4-5> 현 사업장소로 이전시 관할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여부 ····· 88
<그림 4-6> 이전시기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 89
<그림 4-7> 이전부지 선정시 고려되는 항목의 중요도 ····· 90
<그림 4-8> 전라북도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항목 ····· 90
<그림 4-9> 기업이전활성화를 위한 1순위 인프라 ····· 91
<그림 4-10> 기업이전활성화를 위한 2순위 인프라 ····· 91
<그림 4-11> 기업이전활성화를 위한 3순위 인프라 ····· 92
<그림 4-12> 설문에 응한 기업들의 연간매출액 현황 ····· 92
<그림 4-13> 설문에 응한 기업들의 종업원수 현황 ····· 93
<그림 4-14> 이전기업의 중요도 산출을 위한 계층도 ····· 105
<그림 4-15> 기업이전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도 산출 ····· 106
<그림 4-16> 기업유치를 위한 중요도 산출(설문대상자 전체) ····· 109
<그림 4-17>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1순위 인프라 ····· 110
<그림 4-18>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2순위 인프라 ····· 110
<그림 4-19>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3순위 인프라 ····· 111

제 1 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기업은 고용 창출, 파생 산업 생성, 소득 증대, 문화 등 지역 사회 기여 등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기업유치는 고용 증대 및 인구의 유입을 초래해 지역 인구가 증가되며, 기업의 생산 활동을 통해 산업 생산을 증대시켜 고용과 생산 등의 복합 작용을 기초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에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총생산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기업의 증가를 가져와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기업유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지역에서는 외국기업, 국내기업, 창업활성화, 벤처기업의 유치가 지역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수도권 및 외국기업을 전라북도로 이전하기 위해서 세제, 금융, 개발사업 등의 지원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나 전라북도로 이전한 기업 수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에 대해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현재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전라북도 이전은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기업이전은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 등 단기적인 기업이전 지원정책으로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스스로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전라북도 이전 수요 및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잠재적인 지방이전 수요와 이전에 따른 애로사항,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실태의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 기업이전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대안 마련과 향후 전라북도의 기업유치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전라북도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 검토, 전라북도의 기업유치의 잠재력을 분석,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업이 전라북도에 이전하는 이유, 잠재적인 이전 수요의 발굴, 기업이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둘째, 기업입지의 결정요인과 전라북도에 입지함에 따른 장·단점 분석하였다.

셋째, 기업의 전북이전 수요 및 신증설 현황, 이전사유, 이전에 따른 문제점, 전라북도 이전 기피이유 등을 파악하였다.

넷째, 이전촉진을 위한 정책수요로서 이전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원제도와 현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정책적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으로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을 비교 분석대상으로 하며, 연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외 및 전라북도의 투자환경을 조사 분석한다. 내용적인 범위는 전라북도의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 국내외 기업유치 사례분석, 기업유치와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제도 등의 현황을 통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외 통계 보고서, 논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종 통계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기업유치여건과 유치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제여건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기업유치를 위한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치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전라북도로 이전한 기업의 이전동기와 이전 만족도 및 투자인센티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계와 실무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라북도에 기업유치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외국인투자를 비롯하여 전북지역으로 이전해 온 기업들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하여 이전 동기, 입지여건에 대한 만족도, 행정지원제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 관련 전문가, 학계,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여 연구수행과정 상 문제점 등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전라북도의 기업유치를 위한 추진 방향을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향과 기업의 유형별로 유치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특성별로 문헌조사, 통계분석, 면담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전라북도의 외국인 기업유치여건과 유치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변 외국기업 유치 여건과 관련된 최근 동향들을 파악하여 향후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투자유치를 위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야별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투자의 개념정립과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기존 국내·외의 선험문헌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 입지분포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전라북도에 투자된 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투자지원제도, 경영여건에 관련된 내용을 설문으로 조사하여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및 입지 행태를 파악하였다.

제 2 장

기업유치 현황분석

- 제1절 산업현황과 발전추이
- 제2절 기업유치 현황
- 제3절 기업유치의 필요성 및 효과

제2장 기업유치 현황분석

제1절 산업현황과 발전추이

1. 제조기업의 일반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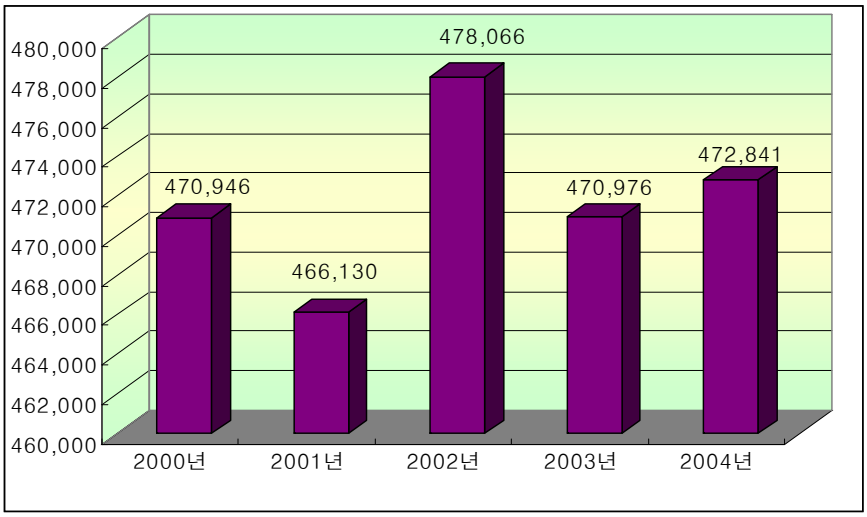
전라북도의 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이는 <표 2-1>과 같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8,000명정도 감소되었다가 점점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1>참조). 이는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IT업계가 급속히 팽창하였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감소되었던 산업구조가 IT와 다른 기술들과의 병합현상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 종사자 수 추이(전산업)

[단위 : 명]

종사자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	470,946	466,130	478,066	470,976	472,841
1-4명	188,865	176,203	181,973	181,453	184,340
5-9명	50,617	56,777	57,761	56,719	53,964
10-19명	50,165	51,224	52,065	51,842	50,063
20-49명	61,548	62,122	63,876	62,659	61,335
50-99명	37,083	37,046	36,483	40,088	42,485
100-299명	40,931	38,173	41,364	38,618	38,079
300-499명	13,632	11,512	13,385	9,770	12,609
500-999명	12,692	16,442	14,513	14,822	14,546
1000명 이상	15,413	16,631	16,646	15,005	15,420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그림 2-1> 연도별 전산업의 종사자수 추이(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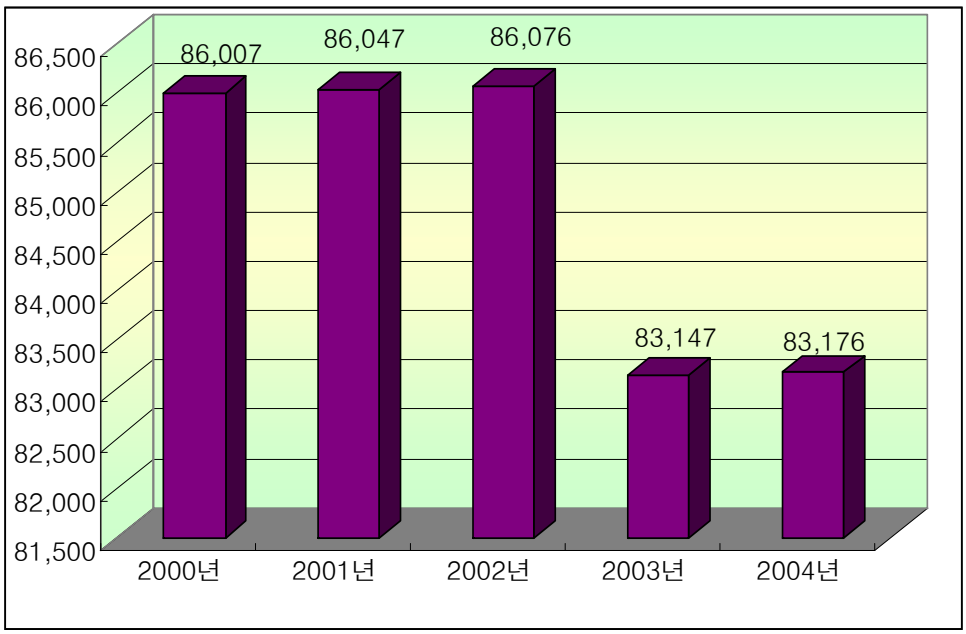
전산업을 제외한 제조업의 종사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2002년까지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2003년부터는 감소추세로 진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2>, <그림 2-2> 참조). 특히 제조업의 경우 5~20명, 100~299명의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300~499명의 대기업규모의 제조업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 종사자 수 추이(제조업)

〔단위 : 명, (%)〕

종사자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	86,007(100)	86,047(100)	86,076(100)	83,147(100)	83,176(100)
1-4명	15,485(18.0)	14,220(16.5)	14,219(16.5)	12,712(15.3)	13,141(15.8)
5-9명	5,286(6.1)	6,493(7.5)	6,440(7.5)	7,033(8.5)	7,183(8.6)
10-19명	7,604(8.8)	8,174(9.5)	8,466(9.8)	8,486(10.2)	7,904(9.5)
20-49명	15,792(18.4)	14,963(17.4)	15,366(17.9)	14,654(17.6)	13,833(16.6)
50-99명	8,327(9.7)	9,794(11.4)	8,569(10.0)	8,917(10.7)	9,486(11.4)
100-299명	12,997(15.1)	13,442(15.6)	13,102(15.2)	14,816(17.8)	14,167(17.0)
300-499명	5,781(6.7)	4,265(5.0)	4,064(4.7)	3,350(4.0)	3,727(4.5)
500-999명	5,299(6.2)	4,592(5.3)	6,706(7.8)	4,318(5.2)	5,617(6.8)
1000명 이상	9,436(11.0)	10,104(11.7)	9,144(10.6)	8,861(10.7)	8,118(9.8)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그림 2-2> 연도별 제조업의 종사자 추이(단위:명)

<표 2-3>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산업	전체	98.977	102.561	98.517	100.396
	대	106.824	99.908	88.894	107.521
	중·소	98.214	102.841	99.506	99.742
제조업	전체	100.047	100.034	96.597	100.035
	대	92.421	105.026	83.002	105.645
	중·소	102.435	98.623	100.689	98.643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분석 편의상 중·소기업의 통계적 구분은 종사자 수 30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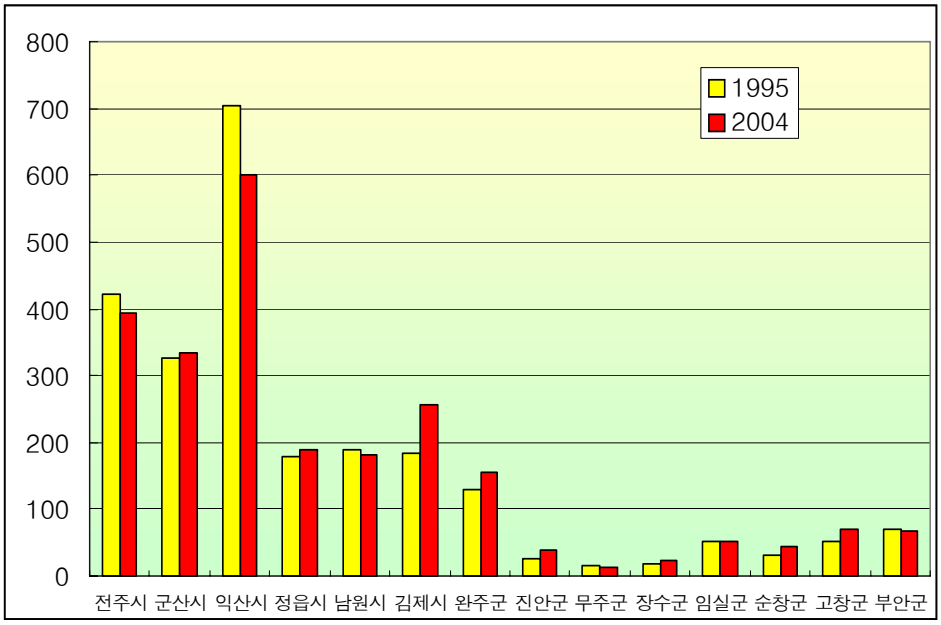
<표 2-4> 전라북도 시·군별 제조업 사업체 수 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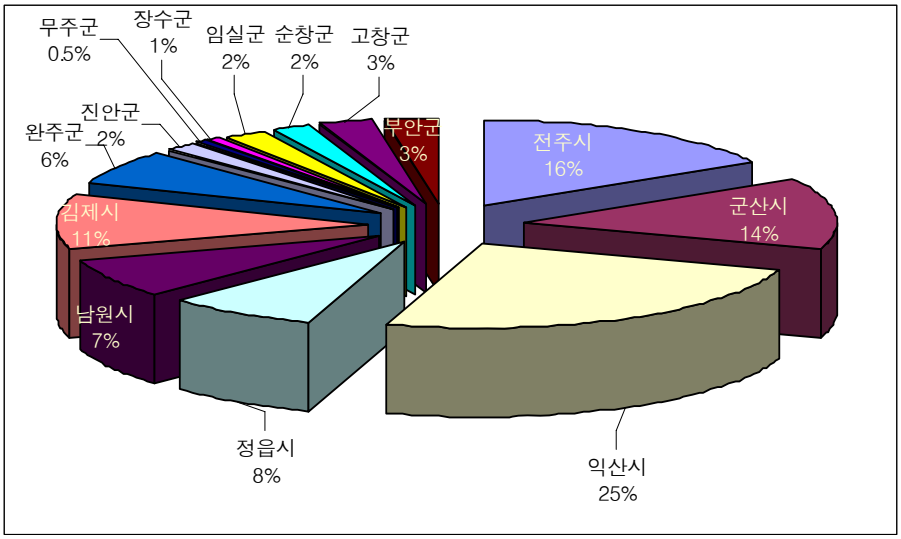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4
시지역	전주시	421(17.5)	421(17.5)	365(16.0)	335(16.8)	368(17.3)	350(16.4)	359(16.0)	361(15.3)	393(16.3)
	군산시	326(13.6)	326(13.6)	321(14.0)	283(14.2)	277(13.0)	296(13.9)	347(15.4)	372(15.8)	335(13.9)
	익산시	705(29.4)	705(29.4)	649(28.4)	546(27.3)	566(26.7)	579(272)	581(25.9)	541(22.9)	600(24.8)
	정읍시	179(7.5)	179(7.5)	183(8.0)	158(7.9)	178(8.4)	163(7.7)	178(7.9)	214(9.1)	188(7.8)
	남원시	188(7.8)	188(7.8)	186(8.1)	162(8.1)	162(7.6)	159(7.5)	166(7.4)	160(6.8)	181(7.5)
	김제시	185(7.7)	185(7.7)	178(7.8)	146(7.3)	161(7.6)	172(8.1)	210(9.3)	265(11.2)	256(10.6)
군지역	완주군	129(5.4)	129(5.4)	160(7.0)	143(7.2)	157(7.4)	163(7.7)	149(6.6)	158(6.7)	155(6.4)
	진안군	27(1.1)	27(1.1)	22(1.0)	21(1.1)	34(1.6)	26(1.2)	34(1.5)	36(1.5)	38(1.6)
	무주군	16(0.7)	16(0.7)	13(0.6)	12(0.6)	11(0.5)	12(0.6)	15(0.7)	18(0.8)	12(0.5)
	장수군	19(0.8)	19(0.8)	22(1.0)	17(0.9)	24(1.1)	29(1.4)	19(0.8)	23(1.0)	24(1.0)
	임실군	52(2.2)	52(2.2)	42(1.8)	41(2.1)	45(2.1)	47(2.2)	53(2.4)	58(2.5)	53(2.2)
	순창군	30(1.3)	30(1.3)	31(1.4)	29(1.5)	30(1.4)	28(1.3)	22(1.0)	30(1.3)	44(1.8)
	고창군	53(2.2)	53(2.2)	59(2.6)	54(2.7)	58(2.7)	52(2.4)	57(2.5)	54(2.3)	70(2.9)
	부안군	69(2.9)	69(2.9)	56(2.4)	53(2.7)	52(2.4)	52(2.4)	56(2.5)	68(2.9)	67(2.8)
합 계		2,399(100)	2,399(100)	2,287(100)	2,000(100)	2,123(100)	2,128(100)	2,246(100)	2,358(100)	2,416(100)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의 전년대비 증감율추이를 살펴보면 전산업의 경우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다 2004년도 회복하는 경향을 보인반면,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의 종사자의 변화의 폭이 심해져 중·소기업에 비하여 안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2-3> 참조). <표 2-4>는 10년 동안(1995~2004년)의 시·군별 제조업사업체수 현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단편적으로 1995년과 2004년을 비교해보면(<그림 2-3>참조)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익산시의 제조업체 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김제시의 경우 2004년 사업체 수가 1995년의 제조사업체 수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약간의 증감을 기록했을 뿐이다. 2004년에는 각 시·군별 제조업체 수 비율을 살펴보면 익산시가 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주시(16%), 군산시(14%), 정읍시(8%), 완주군과 남원시(6%)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작은 비율을 가진 지역은 무주군으로 0.5%를 차지하였다(<그림 2-4>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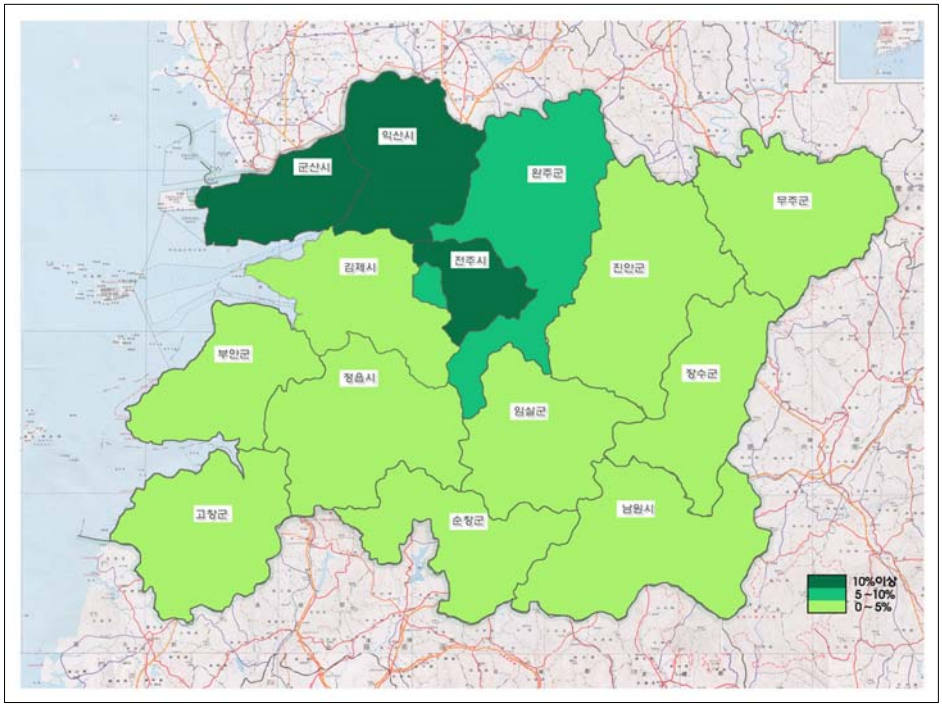
<그림 2-3> 시·군별 제조업의 사업체 수 비교(1995년과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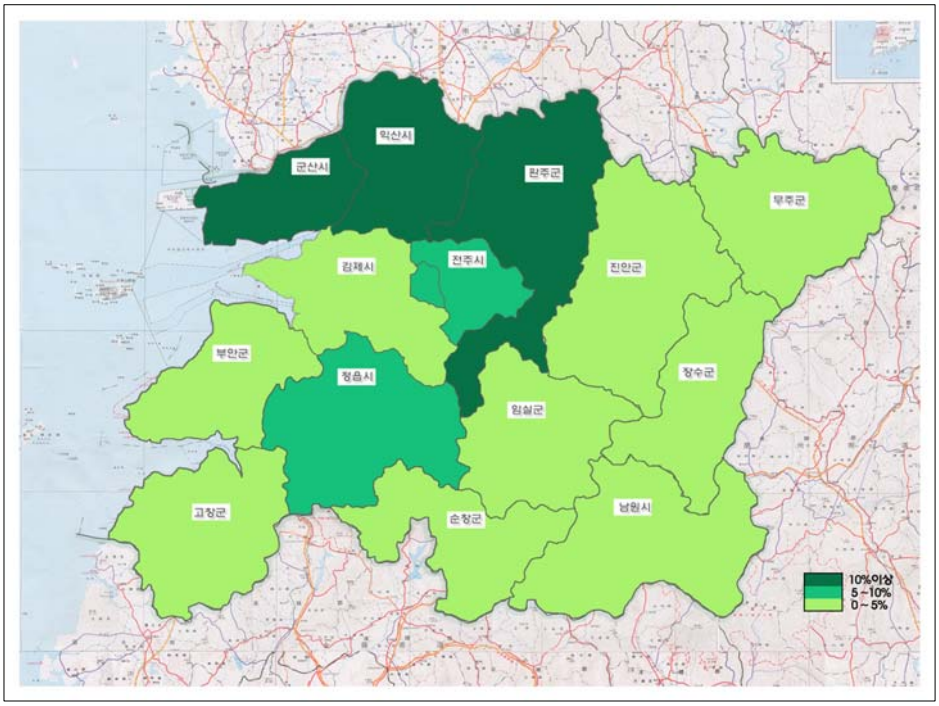
<그림 2-4> 2004년 각 시·군별 제조사업체 비율

2. 전북 제조업체의 부가가치에 대한 공간구조

2004년 현재 전라북도 제조업체의 부가가치 시·군별 분포현황을 보면 완주군, 익산시, 군산시에 제조업의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5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였던 구조에서 전주시가 제외되고 완주군이 포함되었다. 전주시는 부가가치 비중 10%이상에서 5~10%로 공간구조가 변화하였으며 정읍시의 경우에는 0~5%에서 5~10%로 공간구조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5>, <그림 2-6> 참조).



<그림 2-5> 1995년 전라북도 제조업체 공간구조의 변화



<그림 2-6> 2004년 전라북도 제조업체 공간구조의 변화

제2절 기업유치 현황

1. 연도별 이전기업의 수

전라북도에 이전한 기업의 분포는 <표 2-5>와 같다. 2001~2004년까지 76개 기업이 전라북도로 이전되었으며 최근 들어 그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 2000년도에 3개 업체만 이전했던 것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2000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전국각지로 옮겨간 991개 기업체 중 전라북도로 이전된 업체는 159개로 발표하였다. 이는 강원도, 충청남도에 이어 전국 3위의 수준이며 현재도 전라북도가 기업유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1)]

1)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3일 내놓은 '기업의 지방이전 실태조사'

<표 2-5> 연도별 전락북도 이전 기업의 수(2001～2004)

〔단위: 개수, (%)〕

항목 \ 년도	2001	2002	2003	2004	합계
이전 기업수	**14**(18.4)	**26**(34.2)	**14**(18.4)	**22**(28.9)	**76**
종업원수	**526**(16.5)	**1,132**(35.5)	**730**(22.9)	**797**(25.0)	**3,185**

또한 최근에 이전한 기업의 원소재지 또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이전됨으로써 국가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권역별 이전기업의 수

권역별 이전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북권이 48개기업이 이전함으로써 전체 63.2%를 차지한 반면, 동부권과 북부권은 각각 7개(9.2%), 10개(13.2%)로 서북권에 치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호남고속도로개통, 항만시설의 발전 등이 타지역에 비하여 활성화 등이 하나의 요인으로 보인다.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소기업(종사자 수, 10～49인)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업과 대기업은 21개로 전체 26.9%를 점유하고 있어 전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기업이상의 기업유치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2-6>, <그림 2-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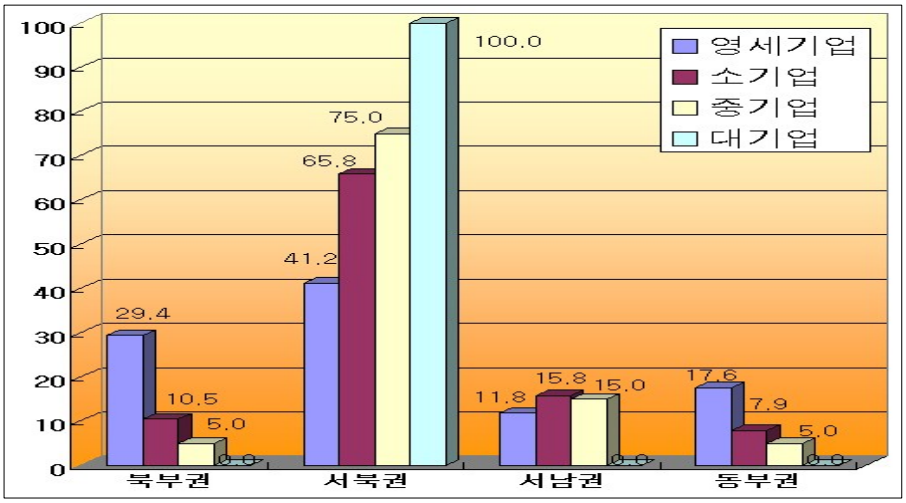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총 844개의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이전 지역은 강원, 충남, 전북 등 서울과 가까운 곳에 이전기업(66.4%)이 집중됐다.이를 보면 원주, 춘천이 있는 강원도가 전체 이전 기업의 37.2%를 차지했고 충남 14.9%, 전북 14.3% 등도 평균치(7.7%)를 넘었다(『파이낸셜뉴스』, 2006.11.3).

<표 2-6> 권역별 이전기업현황(2001～2004)

〔단위 : 개수, (%)〕

기업분류 / 입지유형	영세기업 (5~9인)	소기업 (10~49인)	중기업 (50~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	합 계
북부권	5(50.0)→ (29.4)↓	4(40.0)→ (10.5)↓	1(10.0)→ (5.0)↓	0(0.0)→ (0.0)↓	10(100.0) (13.2)
서북권	7(14.6)→ (41.2)↓	25(52.1)→ (65.8)↓	15(31.3)→ (75.0)↓	1(2.1)→ (100.0)↓	48(100.0) (63.2)
서남권	2(18.2)→ (11.8)↓	6(54.5)→ (15.8)↓	3(27.3)→ (15.0)↓	0(0.0)→ (0.0)↓	11(100.0) (14.5)
동부권	3(42.9)→ (17.6)↓	3(42.9)→ (7.9)↓	1(14.3)→ (5.0)↓	0(0.0)→ (0.0)↓	7(100.0) (9.2)
전북	17(22.4) (100.0)	38(50.0) (100.0)	20(26.3) 100.0	1(1.3) (100.0)	76 (100.0)

주) → : 권역별 비중, ↓: 분류된 기업별 비중



<그림 2-7> 기업분류에 따른 권역별 이전기업 현황

제3절 기업유치의 필요성 및 효과

1. 기업유치의 필요성

기본적으로 경제는 인적자원, 물적자원, 이 둘을 결합시키는 기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유기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중에

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경부를 축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가져왔고 지금도 울산, 포항 등 중화학공업의 입지를 통해 발전한 지역은 높은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경제도 활성화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침체하기 마련이다. 전북으로 투자를 한 기업은 생산설비의 투자와 고용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1) 경제성장 촉진

기업유치는 전라북도의 자본형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기업유치로 인해 전라북도로 유입된 자본은 그 자본이 직접적으로 유입된 산업의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고용창출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관련 산업의 생산증가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라북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유치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그 자체로 소득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중 상당 부분이 재투자되어서 고정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생산가능 곡선을 확장시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투자된 자본은 산업구조에 자본집약적인 형태로 흡수되어 전라북도의 자본축적을 늘리고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보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 촉진 효과를 갖게 된다.[2] 또한 지역의 성장 잠재력 등으로 인한 내부역량이 축적되어 있을 경우 투자자본과의 상호작용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크게 된다.

2) 고용창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고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고자 하며, 이 경우 고용비용이 낮은 지역 인력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2) 류승안,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과 우리의 대책”, 국세청, 2003

입장에서 보면 전라북도 내 잉여인력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실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기업유치가 전라북도의 고용을 창출시키는 효과는 직접적인 창출효과와 간접적인 창출효과로 나누어지며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투자기업이 전라북도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과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지역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유발되는 효과이고, 간접적인 고용 창출효과는 투자기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의 유통, 분배 등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유발되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다시 전방고용창출 효과와 후방고용창출 효과로 나뉘고 전자는 투자기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유통과 분배와 관련해 기업의 고용이 확대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투자기업에 중간재, 원자재 등 부품을 공급하는 현지기업의 고용이 창출됨을 말한다.

기업유치가 갖는 지역의 고용창출의 정도는 국내 상황, 투자기업의 생산방식, 현지화의 정도, 그리고 투자의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투자기업의 생산방식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가능한 직원을 현지인으로 채용하고 부품도 지역의 생산부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정도가 클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유치가 지역의 고용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거나 기존지역 기업의 도산 등을 통해서 대량의 실업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투자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

3) 기술이전

기업유치는 외부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전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 기업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하여 기업의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로 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이전의 형태에는 타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도입하는 직접적 형태와 직접투자를 통한 자본이동 과정에서 선진국의 첨단기술이 인적자본에 체화된 형태 또는 시설재 등 자본재에 체화된 형태로 이전되게

되는 간접적인 형태로 기술이 도입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큰 비용부담이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업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도입된 기술은 여러 경로를 통해 지역의 다른 기업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업이 지역시장에 익숙한 지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보다 우월한 기업특유의 우의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투자기업의 기술파급효과는 부품이나 설비를 공급하는 과정, 하청 기업들에 대해 기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방연계효과와 생산된 제품이 중간 형태로 다른 기업의 완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전방연계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투자하는 기업은 현지기업의 R&D활동이나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인적자원에 체화된 형태로도 그 파급효과를 가진다.

4) 부정적 효과

투자기업은 일정한 기간 후에 투자수익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 유입보다 유출이 커지게 되는데 투자기업의 경우 실질이익의 타 지역으로 유출, 세금의 회피 등으로 인해 정상이상의 높은 이익과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적대적 M&A가 본격적으로 허용되면 지역 내 우량기업들의 인수가 빈번해 지게 된다. 그들은 우세한 자금력과 기술력,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앞세워 지역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확대하고 지역의 산업기반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자금난으로 핵심사업 및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지역기업의 상황에서 대등한 입장에서의 기술이전이나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지므로 최악은 지역기업의 잠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주요 업종에서 투자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어 향후 독과점 횡포, 급격한 철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기업유치의 경제적 기대효과

1)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의 개요

본 절에서는 투자유치에 따라 전북지역의 경제에 미치게 될 경제적 파급효과를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창출 효과, 전후방연계효과 등을 산출하여 어떠한 경제적 투자나 경제계획에 따른 향후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투자행위나 경제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분석)을 통한 산출법과 유사사례를 재검토하여 각 경제효과의 유발계수를 산출하여 이를 통해 파급효과를 유도해 보는 케이스 산출법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북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연관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북실정에 맞는 산업연관표의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한국은행에서 '04년에 발표한 '00년 기준 전국산업연관분석표를 활용하거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03년에 발표한 '00년 기준 각 지역 간 산업연관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보정계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연도와 현재 시점간의 많은 시차가 존재하고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05년 9월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에서 정리하여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케이스 산출법을 활용했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산출되어지는 유발계수들에 기초하여 이 지역 주요 산업분야에 원화가치 100억 원의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었다는 가정 하에 발생할 수 있는 생산액 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 그리고 소득(또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산출하여 사전적인 파급효과를 잠정적으로 추산해 보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양적 파급효과 이전에 기업유치에 따라 지역 경제와 각 산업, 각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질적 파급효과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양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기 이전에 이러한 질적 파급효과를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 정리해 봄으로써 기업유치의 중요성을 사전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2) 지역경제에 대한 양적 파급효과

(1) 사례연구에 의한 분석개요

사례연구를 통한 기업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우선 지역경제활동의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산출하고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연구사례들을 선별하여 이를 통해 경제성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 유발계수를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부재하고, 이에 따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원시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는 제한적 상황에서 '05년 활발한 유치활동에 의해 좋은 성과를 거둔 기업유치의 실적자료와 이에 상응한 평가분석 사례에서 자료들을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지역산업체에 기업이 유치되었을 때에 전북지역에 파급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지역소득(또는 부가가치)유발효과들을 추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업유치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잠재적 경제 효과를 양적으로 제시하였다.

(2) 기업유치에 따른 경제성 분석자료

'05년에 전북경제가 이룬 성과 중에 대표적인 것은 12개 대기업을 비롯한 341개 기업을 전북지역으로 유치하는 데에 성공했다.[3] 이중 12개 대기업의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조 2천 635억 원 투자에 총 4,700명의 고용창출과 120억 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거두었다.[4]

이외에도 '05년 상반기 LS전선 등의 대기업 유치와 군산자동차 클러스터내의 자동차부품단지내의 투자활동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2-7>과 같이 정리된다.

3) 2005년 10월말 기준
4)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5년 11월 보도자료.

<표 2-7> 2005년 상반기 대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 업	공장위치	투자액(억원)	종업원수(명)	매출액(억원)	임금소득(억원)
LS전선	완주산단	1,415	830	3,500	406
영진약품공업	완주산단	600	600	850	210
동양물산기업	익산왕궁농공	1,000	700	6,000	280
대상	군장국가산단	1,276	300	2,200	120
사조산업	순창풍산농공	450	200	500	70
아데카화인케미칼[1)]	전주과학산단	344	100	400	36
대상식품	순창가남농공	150	100	300	30
미원상사	전주과학산단	600	200	2,000	60
동양에이엔아이	전주과학산단	300	300	850	120
JTY	개별입지	300	300	1,000	120
리나마사	군산 자유무역지역	1,000	600	6,000	431
자동차 부품단지내[2)]	군산자동차클러스터	1,570	20,000	10,000	7,000[3)]

자료: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보도자료 (2005. 9)

1) 외국인 투자기업

2)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보도자료(2005. 10)

3) 부가가치액임.

(3) 경제성 효과 유발계수 산출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각 기업별 고용유발계수와 생산액 유발계수, 소득유발계수를 산출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의 고용유발계수 = 종업원수(명) ÷ 투자액(억원)
- 기업의 생산액유발계수 = 매출액(억원) ÷ 투자액(억원)
- 기업의 소득유발계수 = 임금소득(억원) ÷ 투자액(억원)

또한 군산자동차 클러스터 내의 자동차부품단지내에서 비롯되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한 각 유발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 자동차부품단지의 고용유발계수 = 종업원수(명) ÷ 투자액(억원)
- 자동차부품단지의 생산액유발계수 = 매출액(억원) ÷ 투자액(억원)
- 자동차부품단지의 부가가치유발계수 = 부가가치액(억원) ÷ 투자액(억원)

이상의 산출식을 이용하여 각 기업의 유발계수들을 산정하여 고용유발계수의 크기를 기준으로 재 정렬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이 산출결과를 보면, 우리 전북지역의 4대 중점산업의 핵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군산자동차 클러스터 내 자동차부품단지에서 유발될 수 있는 고용창출효과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당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군산 자동차 클러스터 중심의 유치활동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이러한 유발계수의 산출결과에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개별 기업들 중에서는 동양에이엔아이와 영진약품공업, JTY에서 동일 규모로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생산액 유발효과 측면에서는 동양물산기업과 미원상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기대되어진다. 임금소득의 유발측면에서는 동양에이엔아이와 JTY, 영진약품공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전북지역에 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표 2-8> 기업유치에 따른 경제성 유발계수

번호	업체명	고용유발계수	생산액유발계수	소득(부가가치)유발계수
1	자동차 부품단지내	12.7389	6.3694	4.4586
2	동양에이엔아이	1.0000	2.8333	0.4000
3	영진약품공업	1.0000	1.4167	0.3500
4	JTY	1.0000	3.3333	0.4000
5	동양물산기업	0.7000	6.0000	0.2800
6	대상식품	0.6667	2.0000	0.2000
7	LS전선	0.5866	2.4735	0.2869
8	사조산업	0.4444	1.1111	0.1556
9	미원상사	0.3333	3.3333	0.1000
10	아데카화인케미칼	0.2907	1.1628	0.1047
11	대상	0.2351	1.7241	0.0940

(4) 기업유치에 따른 양적 파급효과

이러한 유발계수에 기초하여 각 기업들에 동일한 규모인 100억원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발생할 수 있는 양적 효과를 가상적으로 산출해 보면 <표 2-9>와 같다.

군산 자동차 클러스터내의 자동차 부품단지내에 100억원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기대할 수 있는 고용창출인원은 약 1,274명이고, 생산유발액은 636.9억원이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445.9억원으로 추산되었다.

다음으로 동양에이엔아이에 100억의 외국인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경우 100명의 고용창출과 283.3억원의 생산유발, 40억원의 임금소득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대표적인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LS전선의 경우 100억원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라 약 59명의 고용창출과 247.3억원의 생산유발, 28.7억원의 임금소득을 전북지역에 파급시키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개별기업 중 가장 큰 유발효과가 기대되어지는 기업으로는 JTY로 100억원의 투자에 의해 100명의 고용이 창출되어지고, 333.3억원의 생산액유발과 40억원의 임금소득을 전북지역경제에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표 2-9> 투자액 100억원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고용창출인원(명)	생산유발액(억원)	소득(부가가치)유발액(억원)
자동차 부품단지내	1,273.9	636.9	445.9
동양에이엔아이	100.0	283.3	40.0
영진약품공업	100.0	141.7	35.0
JTY	100.0	333.3	40.0
동양물산기업	70.0	600.0	28.0
대상식품	66.7	200.0	20.0
LS전선	58.7	247.3	28.7
사조산업	44.4	111.1	15.6
미원상사	33.3	333.3	10.0
아데카화인케미칼	29.1	116.3	10.5
대상	23.5	172.4	9.4

이상과 같은 경제성 파급효과에 대한 양적 분석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가 개별기업별로 충분히 정리되고 수집되어 D/B화 되어졌을 때에 전북경제에 미치는 양적 파급효과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측되어지고, 또한 이에 상응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와 지속적 지원전략 및 정책수립의 소중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현황

1) 산업단지 및 논공단지 조성현황

(1) 전라북도 산업단지 조성현황

2006년 12월 현재, 전라북도는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10개의 지방산업단지, 그리고 1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군산, 익산에 위치해있고, 지방산업단지는 정읍에 3곳, 전주와 완주지역에 각각 2개, 익산, 김제, 군산에 각각 1개씩 위치하고 있다.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84.4%로 국가산업단지가 75.7%, 지방산업단지가 94.5%를 보이고 있다. 다른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거의 100%에 근접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근 조성된 가장 넓은 규모의 군장국가산업단지와 완주의 전주과학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높아서 전체적인 전라북도의 미분양률을 높이고 있으나 군장국가산업단지의 두산인프라코어사의 입주 등 활발한 기업입주가 예상된다.

<표 2-10> 전라북도 산업단지 분양 및 조성단가 현황

<2006. 12월말 현재>

〔단위 : 천㎡, 억원, %〕

구분	지구명	조성기간	사업비	조성면적	분양대상	분 양		미분양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 14개소			**17,353**	**44,501**	**31,979**	**26,985**	**84.4**	**4,994**	**15.6**
국가 산업 단지	**소계 : 3개소**		**10,681**	**24,143**	**16,892**	**12,779**	**75.7**	**4,113**	**24.3**
	군산국가	'87~'94	2,413	6,828	5,549	5,490	98.9	59	1.1
	군장국가 (조성중)	'89~'06	8,199	15,889	10,149	6,095	60.1	4,054	39.9
	익산 제1	'70~'74	69	1,426	1,194	1,194	100.0	-	0.0
지방 산업 단지	**소계 : 10개소**		**6,410**	**20,249**	**15,028**	**14,206**	**94.5**	**822**	**5.5**
	전주과학	91~'01	1,677	3,074	2,300	1,567	68.1	733	31.9
	익산 제2	'78~'96	1,629	3,309	2,639	2,639	100.0	-	0.0
	전주 제1	'66~'69	6	1,683	1,283	1,283	100.0	-	0.0
	전주 제2	'84~'87	138	687	558	558	100.0	-	0.0
	완주산단 (전주제3)	'88~'94	1,106	3,358	2,541	2,541	100.0	-	0.0
	정읍 제1	'79~'81	8	211	153	153	100.0	-	0.0
	정읍 제2	'91~'95	412	999	676	609	90.1	67	9.9
	정읍 제3	'91~'03	536	1,025	762	740	97.1	22	2.9
	김제순동	'95~'99	120	262	184	184	100.0	-	0.0
	군산지방	'78~'05	778	5,641	3,932	3,932	100.0	-	0.0
도시 첨단	**전주도시** (조성중)	**'04~'07**	**262**	**109**	**59**	**-**	**0.0**	**59**	**100.0**

주)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는 테크노파크·나노센터, 기계리서치센터확장 등 입주 예정

(2) 전라북도 농공단지 조성 현황

2006년 9월 말 현재, 전라북도에는 33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5개의 단지가 조성중이며, 537개의 사업체에 9,288명이 고용되어 있다.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6,031천㎡의 지정면적 중 4,113천㎡면적이 분양대상이며 김제 6개, 정읍·남원 각 5개를 비롯하여 각 시·군에 1~6개의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1984년에

남원 인월농공단지를 시작으로 농공단지가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80년대 조성된 농공단지가 12개로 전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설의 노후화 및 주변여건의 개선 미비로 휴·폐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1> 전라북도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

〔2006. 11. 30 현재〕

구분 / 단지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지정면적 (천㎡)	분양계획 (천㎡)	분양실적 (천㎡)	분양가 /㎡	미분양 (천㎡)	분양율 (%)	업체 (개)	종업원 (명)
38개단지		177,400	6,031	4,118	4,036	26,202	77	98.1	537	9,288
군산 성산	87-88	1,806	135	126	126	54,500		100	10	109
서수	89-91	6,243	289	239	239	35,498		100	46	752
옥구	93-94	5,634	130	103	103	53,845		100	25	261
익산 삼기	88-89	2,107	133	113	113	19,438		100	24	440
황등	90-92	3,875	152	119	119	25,730		100	51	191
낭산	92-93	2,202	129	109	109	11,985		100	11	94
왕궁	04-07	18,500	330		조	성	중			
정읍 농소	87-88	3,611	185	173	173	16,050		100	4	643
북면	88-89	2,902	214	173	173	12.100		100	27	393
고부	91-93	3,822	148	128	128	19,965		100	16	466
신태인	97-01	4,518	149	120	120	15,222		100	10	130
신용	04-06	6,562	143		조	성	중			
남원 광치1	90-92	5,340	140	117	117	36,300		100	14	286
광치2	94-95	4,770	112	96	96	40,737		100	23	197
어현	91-92	3,540	116	110	110	31,242		100	1	234
인월	84-86	667	50	31	31	8,510		100	4	263
노암	02-05	8,533	147	107	51	39,364	51	50.0	9	103
김제 월촌	91-93	5,962	145	122	122	38,110		100	18	337
황산	86-87	1,045	73	55	55	27,220		100	10	277
만경	90-91	5,436	215	180	180	37,220		100	18	254
서흥	88-90	4,768	280	237	237	30,250		100	28	493
봉황	89-92	5,659	233	204	204	34,000		100	29	525
대동	03-06	14,880	330		조	성	중			
완주 이서	87-91	4,381	393	389	389	11,200		100	4	306
진안 연장1	88-89	851	53	45	45	8,775		100	9	170
연장2	99-02	6,032	146	105	79	23,885	26	75.2	23	126
무주 안성	92-93	2,835	94	79	79	24,000		100	16	100
장수 천천	89-90	943	57	49	49	36,000		100	11	96
장계	01-03	8,631	285	204	204	39,000		100	9	270
임실 신평	86-87	760	55	49	49	30,000		100	9	341
오수	89-91	2,277	119	100	100	30,000		100	13	151
임실	03-06	7,177	147		조	성	중			
순창 가남	87-88	1,176	82	61	61	9,377		100	4	233
풍산	04-06	8,000	139		조	성	중			
고창 고수	89-90	1,624	105	80	80	12,160		100	15	204
아산	92-93	3,303	140	111	111	18,210		100	16	139
부안 줄포	89-90	1,878	89	68	68	13,612		100	12	555
부안	96-99	5,150	149	116	116	21.174		100	18	149

주1: 조성중인 단지는 분양면적에서 제외

전라북도 농공단지의 분양률은 98.1%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시군이 100%로 완료되어 기업수요에 대비를 못하고 있는 반면에, 2000년 이후 조성된 남원의 노암농공단지와 진안 연장2농공단지 2개 단지가 미 분양되고 있다. 분양가는 ㎡당 평균 26,202원이며 순창의 가남농공단지가 9,377원/㎡로 최저가이며 군산의 성산농공단지가 54,500원/㎡로 가장 높다.

2) 각 시·군 별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현황

(1) 전주시

전주시의 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 형태의 제1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전주 제1산업단지는 공업의 지방 분산과 소득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1966년~1969년에 조성되었으며 주로 섬유제품, 임가공 생산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체가 입주되어 있다. 전주 제2산업단지는 전주시를 내륙공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경제적 중추기능 담당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조립금속업종 중심의 산업단지로 육성계획이었으나 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입주되어 있다.

<표 2-12> 전주시 산업단지 현황

단지명	분양률	가동률		미분양면적	비고
		가동업체수	휴·폐업수		
전주제1산업단지	100%	107	0	0	전 제조업
전주제2산업단지	100%	41	0	0	전 제조업

2006년 12월말 현재, 전주시에 조성된 2개의 지방산업단지는 분양률 100%로 147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가동률 역시 100%를 보이고 있다.

<표 2-13> 전주시의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

단지명	추진시기	위치	조성규모	유치업종 (특화)	진행정도
도시첨단	2005 ~2007	전주시 팔복동 공무원교육원 앞	33,180평	지역혁신산업 및 R&D센터 집적화	현재 55%진행 (기반공사)

전주시는 향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당초 2005년~2007년의 2단계조성에서 2007년~2012년으로 사업기간을 수정하여 60만평 규모를 3단계(1단계 4만평, 2단계 16만평, 3단계 44만평)로 나누어 조성할 계획이다. 1단계 추진계획으로 40,000평 규모의 기존 1단계 구역 내 조성을 계획 중이며 우수유망집적단지 조성의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두산인프라코어(주)의 군산이전 확장에 따른 협력업체 유치를 목적으로 친환경형의 산업단지형태를 갖추어 전북테크노파크,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생산시설 확장사업 등 3개 지역혁신산업 및 R&D센터를 집적화시키고자 한다.

이밖에도, 전주시는 도시 확장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의 용지부족에 따라 전주시 팔복동 일원에 협동화단지 3개를 조성하고 있으며, 16개 기업에게 분양이 완료됨으로써 현재 협동화2단지는 4개사가 정상가동중이며, 나머지 2개단지도 2007년 1월에 조성이 완공되어 가동될 전망이다.

(2) 군산시

군산시는 2개의 국가산업단지와 1개의 지방산업단지, 3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전라북도에서의 산업단지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다. 국가산업단지는 해안매립을 통한 국토확장과 대도시 산업분산정책에 따른 새로운 산업기지조성을 목적으로 1994년에 준공되었으며 자동차관련 업종의 비중이 높다.

군장국가산업단지는 1989년에 착공되어 현재 조성중이며 조성 면적이 15,889천㎡로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이다. 군산자유무역지역은 대중국 및 동북

아 생산 및 물류의 전진기지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조성하였다.

<표 2-14> 군산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가동현황

단지명	분양률	가동률		미분양면적	비고
		가동업체수	휴·폐업수		
자유무역지역	100%	4	-	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군장국가 산업단지	22.2	16	-	4,054	
군산국가 산업단지	100	91	1	59	자동차관련제조 外
군산지방 산업단지	100	54	6	0	전 제조업
옥구농공단지	100	20	1	0	
서수농공단지	100	37	5	0	
성산농공단지	100	7	1	0	

군산시에 소재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분양률 및 가동률을 살펴보면, 농공단지의 경우 분양률 및 가동률은 100%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형태인 군산국가산업단지의 59,000㎡가 미분양, 가동률은 99%를 보이고 있다.

조성중인 군장국가산업단지는 현재 두산인프라코어의 입주 등 활발한 기업유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가동률 및 미분양면적이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장국가산업단지의 입주진행으로 군산시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성계획은 없으나 군장국가산업단지의 분양이 2008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맞추어 군장국가산업단지 2지구 조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익산시

익산시는 지방산업단지 1개소와 3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분양률은 100%를 보이고 있다. 익산제2지방산업단지는 기계, 전자, 전기, 정밀화학, 섬유, 음식료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5> 익산시의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단지명	분양률	가동률		미분양면적	비고
		가동업체수	휴・폐업수		
제2지방 산업단지	100%	108	15	0	기계, 전자, 전기, 정밀화학, 귀금속外
황등농공단지	100%	42	7	0	
삼기농공단지	100%	22	1	0	
낭산농공단지	100%	7	1	0	

익산시에 소재한 단지의 가동률을 살펴보면, 제2지방산업단지는 8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3개의 농공단지는 평균 8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

<표 2-16> 익산시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단지명	추진 시기	위치	조성규모	유치업종 (특화)	진행정도
익산지방 산업단지	2006 - 2011	익산시 삼기면, 낭산면 일원	3,300천㎡ (백만평)	의료・정밀,광학기기,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전자	2006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완료
익산왕궁 농공단지	2004 - 2007	익산시 왕궁면 일원	330,000㎡ (10만평)	석제특화	

익산시는 2006년~2011년까지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조성을 계획중이며 조성중인 1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가 있다. 익산지방산업단지는 의료 및 정밀, 광학기기,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한 단지조성을 계획 중이며 2006년 현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한 상태이다. 왕궁농공단지는 특화단지로 조성중이며, 이미 입주계약이 다 끝난 상태이다.

(4) 정읍시

정읍시에는 1979년~2003년에 걸쳐 3개의 지방 산업단지와 4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기조성된 단지의 분양률은 100%를 보이고 있다. 1981년에 조성된 정읍 제1지방 산업단지는 중소기업의 근대화 및 협동화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 전문화단지로 주로 종이류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로 조성되었다. 1995년에 조성된 정읍 제2지방 산업단지는 중소기업특별지원 산업단지로 지방특화 산업 및 비공해 업종의 집중유치를 위한 단지로 조성. 음식료품, 섬유, 화학, 조립금속, 기계 등의 업종이 중심이다. 2003년에 조성된 정읍 제3지방 산업단지는 주로 생활용품을 생산하여 인근 대도시에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하였다. 정읍시에 소재한 단지의 가동률을 살펴보면, 지방산업단지는 95%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농공단지는 농소농공단지를 제외한 3개의 단지에서 휴·폐업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 2-17> 정읍시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단지명	분양률	가동률			미분양 면적	비고
		가동 업체수	휴·폐업 수	비율		
정읍제1지방	100%	10	-	100%	-	식품, 섬유 ,제지, 기계 外
정읍제2지방	100%	62	2	95%	-	음식료, 섬유, 화학, 종이 外
정읍제3지방	100%	53	3	93%	-	음식료, 섬유, 화학, 종이 外
신태인	100%	13	1	86%	-	-
북면	100%	27	4	83%	-	-
고부	100%	16	1	93%	-	-
농소	100%	4	-	100%	-	-

주1) 신용(육가공)전문농공단지 조성중(95%) : 43천평(산업용지 34천평)
주2) 2007년 초 분양예정

정읍시는 향후 1개의 지방 산업단지 형태의 정읍 첨단과학 산업단지와 2개의 농공단지가 조성중이거나 조성계획 중에 있다.

<표 2-18> 정읍시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단지명	추진 시기	위치	조성규모	유치업종 (특화)	진행정도
정읍첨단과학 산업단지	2005~ 2015	정읍시 신정동	100만평	방사선 조사시설 이용, 첨단의료, 정밀 광학기기 식품・생물・생명관련 산업	1단계 30만평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중
태인 농공단지	2007~ 2010	태인면 오봉리	8만평	음식료품(과일쥬스, 복분자주, 포도주 등) 전통특산물(녹차, 한과 등)	신용(육가공)전문 농공단지 분양률 추이를 감안 단지지정 및 승인 신청
신용농공단지	2004~ 2006	신태인읍 신용리	4.3만평	육가공전문단지	2007년 2월 분양공고 중

정읍첨단과학 산업단지는 100만평 규모에 2005년~2015년 동안 2단계 조성계획(1단계 30만평, 2단계 70만평)을 통해 방사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의 전북분원의 설립으로 수요가 증대될 첨단의료 및 정밀광학기기, 식품・생물・생물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2006년 10월말 현재, 입주 희망기업의 입주의향서를 확인한 결과 54개의 업체가 입주의사를 밝히고 있다.

태인농공단지는 8만평 규모에 음식료품과 전통특산물을 특화한 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95%완공된 신용농공단지(육가공)의 분양률 추이를 감안하여 단지로의 지정 및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5) 남원시

남원시에는 5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전체 48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다. 농공단지의 분양률 및 가동률을 살펴보면, 노암농공단지를 제외한 4개의 농공단지에서 분양률 100%를 보이고 있으나 2005년에 조성・완공된 노암농공단지에서는 분양률이 57.7%로 미분양면적이 발생하고 있다. 가동률은 인월과 어현농공단지는 100%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나머지 3개의 단지에서는 각각 93%, 95%, 85%

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표 2-19> 남원시의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단지명	분양률	가동률		미분양면적	비고
		가동업체수	휴·폐업수		
인 월	100%	4	-	-	
어 현	100%	1	-	-	
광치1	100%	14	-	-	
광치2	100%	20	1	-	
노 암	57.7%	6	1	51,000㎡	

남원시는 향후 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추가적인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리산 주변의 청정웰빙지역이라는 자연적 조건을 이용하여 첨단산업 및 바이오 의약연구를 특화한 30만평규모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는 2006년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노암 2농공단지의 추진 시기는 5만평규모의 첨단기계와 식품을 특화로 단지를 계획 중이며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표 2-20> 남원시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단지명	추진시기	위치	조성규모	유치업종(특화)	진행정도
남원지방 산업단지	2007 -2012	남원시 주생면일원	992,000㎡	정보통신산업, 허브산업, 자동차관련산업	2007년 타당성조사용역 예정 예산 1억5천
노암2	2007 -2009	남원시 노암동 산70번지 일원	50,000평	첨단기계, 식품	타당성조사완료

(6) 김제시

김제시에는 1개의 지방산업단지와 7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102개의 업체가 입주해있다. 순동지방산업단지는 새만금 개발권의 배후지원 기능강화와 지역소득원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음식료, 석유화학(플라스틱), 1차금속, 조립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등의 제조업이 중심이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조성된 단지의 분양률은 100%이며 가동률은 89%를 보이고 있다.

순동지방산업단지는 9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11월에 준공된 대동농공단지를 제외한 농공단지는 8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나 휴·폐업으로 인한 단지는 후순위자의 입주로 인하여 단지의 공백의 우려는 없다. 대동농공단지는 2006년 11월에 준공되어 16개사의 입주가 확정되어있으며 현재 입주를 위한 건축중에 있다.

<표 2-21> 김제시의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단지명	분양률 (%)	가동률(개소)		미분양면적 (㎡)	입주준비(개소) (공장가동전)
		가동업체수	휴·폐업수		
계		102	13		27
순동지방산단	100	21	1	0	1
만경농공단지	100	14	1	0	2
황산농공단지	100	10	0	0	0
서흥농공단지	100	22	4	0	2
봉황농공단지	100	20	6	0	3
월촌농공단지	100	14	1	0	3
대동농공단지 ('06.11.14준공)	100	1	0	0	16 (건축중)

김제시는 조성된 단지의 분양률이 100%를 보임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단지조성이 시급하고, 계획 중인 김제지방산업단지는 조성기간 5년, 100만평 규모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주, 군산의 중간입지 지역으로써 첨단부품소재, 식품산업, 기계, 자동차 부품 특화 단지로 조성계획이다. 2006년 11월 말 현재, 위치 선정 및 단지조성의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표 2-22> 김제시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단지명	추진시기	위치	조성규모	유치업종 (특화)	진행정도
김 제 지방산업단지	2006 ~ 2011 (6개년)	김제시 백산면일원	330만㎡ (100만평)	첨단부품소재 식품산업, 기계, 자동차부품등	타당성조사 진행 중 (45%)

(7) 완주군

완주군에는 완주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 82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완주산업단지는 산업구조 개선으로 지역개발 촉진 및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내륙형 첨단산업단지 용지의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다. 분양률 및 가동률은 100%를 보이고 있다.

<표 2-23> 완주군의 산업단지 현황

단지명	분양률	가동률		미분양면적	비고
		가동업체수	휴·폐업수		
완주산업단지	100%	82	0	0	금속, 기계 및 장비 外

주력업종으로는 금속,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며 음식료품, 목재 및 나무제품, 종이제품, 비금속광물 등은 입주가 제한되어 있다.

<표 2-24> 완주군의 산업단지 조성계획

단지명	추진시기	위치	조성규모	유치업종(특화)	진행정도
완주2지방 산업단지	2005~2014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일원	95만평	자동차, 기계부품 기타	타당성조사 완료(06.7)
완주소양 농공단지	2005~2009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일임마을	6만평	자동차부품 및 기계조립금속	기본계획용역착수

완주군은 기조성된 완주산업단지의 공급여력이 없고 단지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산업단지의 공급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완주2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추진 시기는 2005년~2014년이며 95만평 규모의 자동차, 기계부품, 조립금속 관련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유치하고자 한다. 완주2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2006년 7월에 완료되었다.

(8) 진안군

진안군은 2개의 농공단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23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업종으로는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및 전자관련이다.

<표 2-25> 진안군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단지명	분양률	가동률		미분양면적	비고
		가동업체수	휴·폐업수		
진안연장 농공단지	100	9	2		
진 안 제2농공단지	75.2	14	1	약 0.75만평	

농공단지의 분양률 및 가동률을 살펴보면, 1989년에 조성된 진안연장농공단지는 10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나 2003년에 준공된 진안제2농공단지는 분양률 75.2%로 미분양면적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93.3%이나 현재 건축 중인 5개 업체와 준비 중인 4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미분양문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표 2-26> 진안군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단지명	추진시기	위치	조성규모	유치업종 (특화)	진행정도
진안 제3농공단지	2007-2010	전북 진안군 진안읍	5-6만평	음식료품 및 농수축산물가공	농공단지 후보지 선정 검토

진안군은 미 분양된 제2농공단지도 업체가 확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단지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2007년~2010년에 5만~6만평규모의 진안 제3농공단지를 조성계획 중이다. 인삼한방특구인 진안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음식료품 및 농수축산물 가공의 업종을 특화한 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며 2006년 11월 말 현재 농공단지 후보지 선정 검토가 진행 중이다.

(9) 무주군

무주군에는 안성농공단지 1개가 조성되어 있어 16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분양률은 100%를 보이고 있으나 16개 업체 중 2개가 휴업상태이고, 4개 업체가 가동준비 중 및 건축 준비 중이어서 실질적인 가동률은 62.5%를 보이고 있다.

<표 2-27> 무주군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단지명	분양률	가동률		미분양면적	비고
		가동업체수	휴·폐업수		
안성농공단지	100%	10	2 (휴업)	0	가동준비중: 2개업체 건축준비중: 2개업체

무주군은 2004년~2008년기간에 4만 5천평 규모의 전통발효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레포츠용품을 특화로 한 무주농공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며, 2006년 11월말 현재 문화재지표조사 및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의견청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다.

<표 2-28> 무주군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단지명	추진시기	위치	조성규모	유치업종 (특화)	진행정도
무주 농공단지	2004~ 2008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636-23번지일원	148,760㎡	전통발효식품 건강보조식품 레포츠용품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의견청취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10) 장수군

장수군은 2개의 농공단지가 소재해 있으며 20개의 업체가 입주해있다. 음식료품, 화공 및 기타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2-29> 장수군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단지명	분양률	가동률		미분양면적	비고
		가동업체수	휴·폐업수		
장계농공단지	91%	3	-	1개블럭	포기로 인한 재분양 예정
천천농공단지	100%	8	3	-	

분양률 및 가동률을 살펴보면, 장계 농공단지는 1개업체가 분양포기로 인한 9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천천농공단지의 분양률은 100%로 나타나 있다.

각 농공단지의 가동률은 장계농공단지의 경우, 9개 업체 가운데 3개의 업체가 가동 중이며, 건축완료 2곳, 건축 중 1곳, 착공준비중인 업체가 3곳으로 나타나고 천천농공단지는 11개 업체 중 8개의 업체만 가동되어 7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전라북도에서 가장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표 2-30> 장수군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단지명	추진시기	위치	조성규모	유치업종 (특화)	진행정도
장수특화 농공단지	2006~ 2010	장수군 장수읍 일원	5만평	특산물 가공업, 생물 산업	위치 확보 (2007년 타당성 조사 실시예정)

장수군은 청정농업·건강특화산업 육성과 연계한 식품가공업 및 첨단 생물 산업을 육성하고자 5만평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계획 중에 있다. 2006년 11월말 현재, 위치확보가 완료되었으며 2007년에 타당성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친환경적 건실한 기업유치로 낙후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11) 임실군

임실군에는 2개의 농공단지가 소재해 있으며 31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분양률 및 가동률을 살펴보면, 오수농공단지의 분양률이 87%로 약 3,000여평의 미분양면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평농공단지는 10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가동률은 두개의 농공단지에서 약 7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표 2-31> 임실군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단 지 명	분양률	가동률		미분양면적	비고
		가동업체수	휴·폐업수		
오수농공단지	87%	10	3	3,168평	
신평농공단지	100	16	2	0	

임실군은 임실농산물가공을 중심으로 한 약 10만평규모의 임실농공단지를 2단계 사업으로 조성계획중이며 2006년~2007년 1단계 45천평의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착공 중이다. 2단계 사업은 2009년에 착수되며 55천평이 조성될 예정에 있다.

<표 2-32> 임실군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단지명	추진시기	위치	조성규모	유치업종 (특화)	진행정도
임실 농공단지	2006~ 2015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산1-4일원	1단계 : 45천평 2단계 : 55천평		1단계 : 조성사업 착공 중 2단계 : 계획 중

임실군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에 공업입지를 공급하고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12) 순창군

순창군에는 2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현재 5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다. 순창군의 장류특화산업과 맞게 음식료품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2-33> 순창군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단지명	분양률	가동률			미분양면적	비고
		가동 업체수	휴·폐업수	비율		
가남농공단지	100	3	1	75%	0	
풍산농공단지	100	2		100%	0	3개 업체 계약완료

분양률 및 가동률 현황을 살펴보면 2개의 농공단지 모두 분양은 100%완료되었으나 가동률은 가남농공단지가 75%, 풍산농공단지는 2006년말 조성으로 현재 2개의 업체가 가동중이며 3개 업체는 계약을 완료하고 입주준비를 하고 있다.

<표 2-34> 순창군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단지명	추진시기	위치	조성규모	유치업종 (특화)	진행정도
순창 제2장류 농공단지	2006~ 2008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일원	148,627㎡ (44,960평)	장류생산 가공공장 및 기타업종	기본계획서 제출

순창군은 기조성된 2개의 농공단지가 분양률 100%를 보임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농공단지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국내 장류문화의 중심지로써 장류생산을 특화로 하는 단지개발을 계획 중에 있다. 조성기간 2006년~2008년(3년간) 인계면 노동리 일원에 약 45천평 규모의 장류관련 단지로 특화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13) 고창군

고창군에는 2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29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표 2-35> 고창군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단지명	분양률	가동률		미분양면적	비고
		가동업체수	휴·폐업수		
고수농공단지	100	12	1	0	
아산농공단지	100	16	0	0	

분양률 및 가동률을 살펴보면, 2개의 농공단지 모두 분양이 100% 완료되었고 가동률은 고수농공단지가 92%, 아산농공단지가 100%를 보이고 있다.

<표 2-36> 고창군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단지명	추진시기	위치	조성규모	유치업종 (특화)	진행정도
흥덕 농공단지	2007년말	흥덕면 오호리 일원	315,666㎡	복분자 가공업체 등	농공단지 지정완료

고창군은 흥덕면 오호리 일원에 10만평 규모의 복분자를 특화하는 가공업체 등을 입주시키고자 단지 조성을 하고 있으며 2008년 초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고창군의 경우 대규모의 기계 제조업보다는 소규모이면서 고부가가치가 있는 부품제조업과 식품산업이 강점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각종 인프라 및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14) 부안군

부안군에는 2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29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분양률과 가동률을 살펴보면, 두개의 농공단지 모두 100%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가동율에서는 줄포농공단지가 72%, 부안농공단지가 83%로 가동을 제고하기 위한 대

책마련이 시급하다.

<표 2-37> 부안군의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단지명	분양률	가동률		미분양면적	비고
		가동업체수	휴·폐업수		
줄포농공단지	100	8	3		
부안농공단지	100	15	3		

<표 2-38> 부안군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단지명	추진시기	위치	조성규모	유치업종 (특화)	진행정도
부안2농공 단지	2005~2009	행안면 역리 일원	10만평	식품, 자동차부품	기본계획용역 완료

부안군은 2005년~2009년 동안 10만평 규모의 부안2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식품 및 자동차부품을 특화하여 단지 조성을 진행중이며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내의 산업단지를 2005년~2025년에 조성하여 2단계에 걸 친 단지조성을 하고자 한다. 1단계(2005년-2015년)로 동 수소·연료전지 실증연구단지 및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관련 기술용역, 설비설계, 설비제조 산업을 유치하며 동 테마파크 건설단계에서 부지조성을 완료하고자 한다.

2단계(2015년-2025년)는 수소·연료전자부품 및 시스템 제조업을 주로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내의 산업단지의 건설로 수소·연료전지 실증연구단지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의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산업화 보급화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성장동력(수출) 산업화에 기여할 것이다.

제 3 장

지역별 유치업종분석

- 제1절 불변생산액추이에 의한 분석
- 제2절 산업집적지에 의한 분석
- 제3절 시·군별 기업유치 업종분석
- 제4절 권역별 기업유치 업종분석

제3장 지역별 유치업종분석

제1절 불변생산액추이에 의한 분석

1. 전주시

전주시의 제조업은 1995년~2004년 사이에 불변생산액이 0.8% 증가에 그치는 등 큰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있다. <표 3-1>와 같이 계산한 결과 업종별로는 섬유제품(28%), 조립금속제품(17%), 출판 및 인쇄업(10.8%)의 순으로 불변생산액이 연평균 10%를 상회하고 있다. 1995년~2004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향후 전주시의 연평균 제조업 증가율을 0.8%로 완만한 추세성장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주시의 제조업은 섬유제품, 조립금속제품, 출판 및 인쇄업이 특화되어 있다.

<표 3-1> 전주시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

산업분류		불변생산액		
번호	산업명	1995년	2004년	연평균증감율
D15	음식료품	124,469.9	92,118.7	-3.3
D17	섬유제품	28,278.6	263,389.6	28.1
D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519,062.4	78,800.8	-18.9
D20	목재 및 나무제품	11,914.8	2,872.4	-14.6
D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615,119.5	692,019.6	1.3
D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16,495.8	41,671.2	10.8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627,202.7	804,526.0	2.8
D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4,947.0	10,925.4	9.2
D26	비금속광물제품	39,304.6	32,141.3	-2.2
D27	제1차 금속산업	8,275.5	10,858.7	3.1
D28	조립금속제품	8,583.2	35,333.7	17.0
D29	기계 및 장비	67,027.0	116,947.0	6.4
D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48,404.4	72,637.9	4.6
D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0	16,361.1	⇧
D33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0.0	1,650.6	⇧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0.0	5,948.0	⇧
D36	가구 및 기타제품	19,760.9	16,728.2	-1.8
제조업 합계*		2,138,846.2	2,298,634.9	0.8

*주1 : 제조업합계는 기타제조업의 불변생산액을 포함한 것임

2. 군산시

군산시의 제조업은 1995년~2004년 사이에 불변생산액이 13.1%가 증가하는 등 비교적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2>와 같이 계산한 결과,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38.9%), 고무 및 플라스틱(26.9%), 가구 및 기타제품(26.6%) 등의 불변생산액이 연평균(13.1%)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군산시의 제조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 및 플라스틱, 가구 및 기타 제품이 특화되어 있다.

<표 3-2> 군산시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

산업분류		불변생산액		
번호	산업명	1995년	2004년	연평균증감율
D15	음식료품 제조업	395,458.4	832,891.1	8.6
D17	섬유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외	6,228.7	8,374.9	3.3
D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062.4	3,754.7	-13.6
D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37,099.8	253,283.6	7.1
D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7,872.1	185,158.0	-3.2
D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96.7	5,252.2	10.7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11,930.4	702,725.2	6.1
D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639.3	107,881.3	26.9
D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57,391.9	532,545.6	4.5
D27	제1차 금속산업	325,524.9	1,059,125.6	14.0
D28	조립금속제품	19,466.7	38,834.2	8.0
D29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190.2	14,392.5	-1.3
D30	사무 계신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97,395.0	-	⇩
D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1,513.5	3,627.1	-21.4
D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406.4	16,277.7	9.1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1,021.8	2,911,349.4	38.9
D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884.6	25,261.0	12.3
D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9,860.7	82,463.2	26.6
D37	재생원료 가공처리업	-	-	-
제조업 합계*		2,252,043.7	6,796,989.2	13.1

*주1 : 제조업합계는 기타제조업의 불변생산액을 포함한 것임

3. 익산시

익산시의 제조업은 1995년~2004년 사이에 불변생산액이 7.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3-3>과 같이 계산한 결과 업종별로는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24.9%), 제1차 금속제품(2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4.0%), 섬유제품제조업(13.7%),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12.5%)의 순으로 불변생산액이 연평균 1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익산시는 목재 및 나부제품 제조업, 제1차금속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조업이 특화되어 있다.

<표 3-3> 익산시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

산업분류		불변생산액		
번호	산업명	1995년	2004년	연평균 증감율
D15	음·식료품 제조업	447,223.5	819,219.8	7.0
D17	섬유제품제조업 ; 봉제의복제외	94,023.9	298,035.3	13.7
D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329,264.0	48,281.6	-19.2
D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16,179.8	119,614.3	24.9
D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21,730.8	27,877.3	2.8
D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제조업	3,892.9	7,490.7	7.5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384,264.0	1,108,050	12.5
D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38,695.4	87,148.2	9.4
D26	비금속광물제조업	214,119.5	276,753.7	2.9
D27	제 1차 금속산업	19,310.8	119,580	22.5
D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60,324.3	108,058.9	6.7
D29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5,074.8	45,033.4	-2.2
D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45,591.5	99,690.9	9.1
D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49,453.2	391,828.3	5.1
D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13,100.8	0.0	⇩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138,391.9	449,857.7	14.0
D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62,794.2	156,434.7	10.7
제조업 합계*		2,201,374.2	4,175,192.3	7.4

*주1 : 제조업합계는 기타제조업의 불변생산액을 포함한 것임

4. 정읍시

정읍시의 제조업은 1995년~2004년 사이에 불변생산액이 1.9%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종별로는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33.7%), 기계 및 장비(7.7%), 화합물 및 화학제품(8.7%)의 순으로 높은 불변생산액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의료정밀과학기기 및 기계를 비롯한 기계업종은 불변생산액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읍시는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기계 및 장비, 화합물 및 화학제품이 특화되어 있고, 향후에는 식품산업의 특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 정읍시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

산업분류		불변생산액		
번호	산업명	1995년	2004년	연평균증가율
D15	음식료품	450,204.1	482,933.7	0.7
D17	섬유제품	30,413.3	6,473.0	-15.8
D19	가죽, 가방 및 신발	-	-	-
D20	목재 및 나무제품	14,752.6	5,531.9	-10.3
D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90,400.5	116,338.6	-5.3
D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0.0	13,602.6	⇧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21,630.1	45,801.8	8.7
D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58,535.7	84,121.7	4.1
D26	비금속광물제품	58,466.8	23,153.1	-9.8
D27	제1차 금속산업	0.0	77,067.7	⇧
D28	조립금속제품	27,711.7	12,137.4	-8.8
D29	기계 및 장비	54,665.8	278,788.8	17.7
D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0.0	0.0	0.0
D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93,933.7	6,501.3	-28.8
D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0,232.1	187,037.8	33.7
D33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33,920.9	0.0	⇩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20,691.3	36,504	5.8
D36	가구 및 기타제품	3,030.6	0.0	⇩
D37	재생원료 가공 처리	0.0	13,934.2	⇧
제조업 전체*		1,168,589.3	1,389,927.5	1.9

* 주1 : 제조업합계는 기타제조업의 불변생산액을 포함한 것임

5. 남원시

남원시의 제조업은 1995년~2004년 사이에 불변생산액이 8.6%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5>와 같이 불변생산액을 계산한 결과 업종별로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28.1%), 음식료품제조업(18.2%), 자동차 및 트레일러(14.7%)의 순으로 불변생산액이 남원시 불변생산액의 연평균 8.6%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남원시는 화합물 및 호학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이 특화되어 있고, 또한 허브관련 산업도 특화되어 있고, 향후 전망이 매우 밝다.

<표 3-5> 남원시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

산업분류		불변생산액		
번호	산업명	1995년	2004년	연평균증가율
D15	음식료품	29,726.6	134,036.3	18.2
D17	섬유제품	35,909.6	0.0	⇩
D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8,138.3	0.0	⇩
D19	가죽, 가방 및 신발	0.0	0.0	0.0
D20	목재 및 나무제품	12,137.2	13,520.1	0.7
D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5,563.4	0.0	⇩
D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534.3	0.0	⇩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1,275.5	11,875.4	28.1
D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0.0	0.0	0.0
D26	비금속광물제품	32,680.9	36,669.3	1.3
D27	제1차금속산업	0.0	0.0	0.0
D28	조립금속제품	2,706.9	6,172.7	9.6
D29	기계 및 장비	0.0	3,484.8	⇧
D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0.0	0.0	0.0
D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0	0.0	0.0
D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0	0.0	0.0
D33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0.0	1.0	⇧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7,121.6	24,481.8	14.7
D35	기타 운송장비	0.0	0.0	0.0
D36	가구 및 기타제품	8,312.9	14,054	6.0
D37	재생원료 가공 처리	0.0	0.0	0.0
제조업 전체*		194,107.1	408,832.2	8.6

*주1 : 제조업합계는 기타제조업의 불변생산액을 포함한 것임

6. 김제시

김제시의 제조업은 1995년~2004년 사이에 불변생산액이 13.9%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6>에서 보는바와 같이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43.4%), 화합물 및 화학제품(20.7%), 제1차 금속산업(15.8%), 음식료품(14.8%), 순으로 불변생산액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김제시의 특화된 산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합물 및 호학제품, 제1차 금속산업, 음식료품으로 분석되었다.

<표 3-6> 김제시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

산업분류		불변생산액		
번호	산업명	1995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D15	음식료품	197,860.7	683,738	14.8
D17	섬유제품	10,670.5	6,675.2	-5.1
D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5,024.9	0.0	⇩
D19	가죽, 가방 및 신발	0.0	0.0	0.0
D20	목재 및 나무제품	4,333.7	0.0	⇩
D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46,502.1	70,106	4.7
D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0.0	0.0	0.0
D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0	0.0	0.0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2,282.7	12,368	20.7
D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3,363.8	45,004.9	14.4
D26	비금속광물제품	33,207.9	85,601.6	11.1
D27	제1차금속산업	3,483.4	13,070.7	15.8
D28	조립금속제품	36,526.0	39,718.4	0.9
D29	기계 및 장비	29,019.8	79,205.1	11.8
D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0.0	0.0	0.0
D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0	7,265	⇧
D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0	0.0	0.0
D33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0.0	3,948.0	⇧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7,969.9	204,975.5	43.4
D35	기타 운송장비	0.0	0.0	0.0
D36	가구 및 기타제품	5,172.6	9,340.5	6.8
D37	재생원료 가공 처리	0.0	7,320.9	⇧
제조업 전체*		395,417.9	1,278,461.2	13.9

* 주1 : 제조업합계는 기타제조업의 불변생산액을 포함한 것임

7. 완주군

완주군의 제조업은 1995년~2004년 사이에 불변생산액이 19.4%가 증가하였다.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종별로는 기계 및 장비(46.9%), 자동차 및 트레일러(26.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24.0%) 순으로 완주군 불변생산액 연평균 19.4%를 상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완주군의 특화된 제조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으로 분석되었다.

<표 3-7> 완주군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

산업분류		불변생산액		
번호	산업명	1995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D15	음식료품	178,956.3	655,470.1	15.5
D17	섬유제품	47,285.9	20,459.3	-8.9
D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18,626.8	0.0	⇩
D19	가죽, 가방 및 신발	0.0	0.0	0.0
D20	목재 및 나무제품	9,019.8	21,612.4	10.2
D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0,620.6	7,049.1	-11.2
D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0.0	0.0	0.0
D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0	0.0	0.0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145,082.1	714,517.2	19.4
D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8,678.8	198,420	24.0
D26	비금속광물제품	67,095.6	57,924.4	-1.6
D27	제1차금속산업	0.0	0.0	0.0
D28	조립금속제품	22,411.6	43,537.8	7.7
D29	기계 및 장비	1,641.4	52,283.6	46.9
D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0.0	0.0	0.0
D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088.4	0.0	⇩
D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0	65,143.3	⇧
D33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0.0	37.9	⇧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238,096.7	1,967,700.7	26.4
D35	기타 운송장비	0.0	0.0	0.0
D36	가구 및 기타제품	2,559.3	3,143.3	2.3
D37	재생원료 가공 처리	0.0	0.0	0.0
제조업 전체*		781,163.2	3,866,498.5	19.4

* 주1 : 제조업합계는 기타제조업의 불변생산액을 포함한 것임

8. 진안군

진안군의 제조업은 1995년~2004년 사이에 불변생산액이 11.9%증가하였고,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제품(7.4%), 음식료품(6.8%)업이 진안군 제조업의 전반을 이끌고 있으며 매우 단조로운 제조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진안군의 특화된 제품은 비금속광물제품, 음식료품이 특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8> 진안군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

산업분류		불변생산액		
번호	산업명	1995년	2004년	연평균 증감율
D15	음식료품 제조업	9,110.0	16,512.3	6.8
D16	담배 제조업	0.0	0.0	0.0
D17	섬유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외	0.0	0.0	0.0
D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0	1.0	⇧
D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0	0.0	0.0
D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0	3.6	⇧
D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	0.0	0.0
D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	0.7	⇧
D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0	0.0	0.0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0	7.3	⇧
D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0	0.0	0.0
D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8,160.0	15,557.4	7.4
D27	제1차 금속산업	0.0	0.0	0.0
D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0	0.0	0.0
D29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0	0.0	0.0
D30	사무 계신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0.0	0.0	0.0
D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0	0.0	0.0
D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0	0.0	0.0
D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0	0.0	0.0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	0.0	0.0
D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	0.0	0.0
D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0	0.0	0.0
D37	재생원료 가공 처리업	0.0	5.0	⇧
제조업 합계*		17,270.0	47,634.0	11.9

* 주1 : 제조업합계는 기타제조업의 불변생산액을 포함한 것임

9. 무주군

무주군의 제조업은 1995년~2004년 사이에 불변생산액이 8.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종별로는 음식료품제조업(19.8%)만이 불변생산액이 연평균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비금속광물제조업(6.6%) 2개의 업종이 무주군의 제조업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단순한 제조업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무주군은 음식료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이 특화되어 있다.

<표 3-9> 무주군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

산업분류		불변생산액		
번호	산업명	1995년	2004년	연평균증감율
D15	음식료품 제조업	380.0	1,931.3	19.8
D16	담배 제조업	0.0	0.0	0.0
D17	섬유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외	0.0	0.0	0.0
D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0	0.0	0.0
D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0	0.0	0.0
D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0	0.0	0.0
D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	0.0	0.0
D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	0.0	0.0
D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0	0.0	0.0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0	0.0	0.0
D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0	0.0	0.0
D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1,420.0	20,309.1	6.6
D27	제1차 금속산업	0.0	0.0	0.0
D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0	0.0	0.0
D29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0	0.0	0.0
D30	사무 계신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0.0	0.0	0.0
D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0	0.0	0.0
D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0	0.0	0.0
D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0	0.0	0.0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	0.0	0.0
D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	0.0	0.0
D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0	0.0	0.0
D37	재생원료 가공 처리업	0.0	0.0	0.0
제조업 합계*		11,800.0	24,597.6	8.5

* 주 : 제조업합계는 기타제조업의 불변생산액을 포함한 것임

10. 장수군

<표 3-10>과 같이 계산한 결과 장수군의 업종은 음식료품, 목재 및 나무제품, 비금속광물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1995년~2004년 사이에 각 업종의 불변생산액이 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조업이 20.7%의 성장을 보이는 것은 음식료품의 급격한 생산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1995년~2004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향후 장수군의 연평균 제조업 증가율을 23.2%로 추세성장 전망을 하였다. 따라서 장수군은 음식료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비금속광물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음식료 제품이 집중되어 있다.

<표 3-10> 장수군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

산업분류		불변생산액		
번호	산업명	1995년	2004년	연평균증감율
D15	음식료품 제조업	0.0	31,790.0	⇧
D16	담배 제조업	0.0	0.0	0.0
D17	섬유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외	0.0	0.0	0.0
D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0	0.0	0.0
D19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0.0	0.0	0.0
D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420.0	561.3	-9.8
D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	0.0	0.0
D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	0.0	0.0
D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0	0.0	0.0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0	0.0	0.0
D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0	0.0	0.0
D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1,610.0	10,917.6	-0.7
D27	제1차 금속산업	0.0	0.0	0.0
D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0	0.0	0.0
D29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0	0.0	0.0
D30	사무 계신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0.0	0.0	0.0
D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0	0.0	0.0
D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0	0.0	0.0
D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0	0.0	0.0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	0.0	0.0
D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	0.0	0.0
D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0	9.1	⇧
D37	재생원료 가공 처리업	0.0	0.0	0.0
제조업 합계*		13,030.0	71,044.2	20.7

* 주1 : 제조업합계는 기타제조업의 불변생산액을 포함한 것임

11. 임실군

임실군의 제조업은 1995년~2004년 사이에 불변생산액이 6.4% 증가하였다.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한 결과, 임실군은 음식료품만이 연평균증가율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업종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제조업종이 봉제의복, 펄프, 종이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가구제조업 등 6개 업종이 군 제조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단순한 제조업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임실군은 봉제의복, 펄프, 종이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가구제조업이 특성화 되어있다.

<표 3-11> 임실군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

산업분류		불변생산액		
번호	산업명	1995년	2004년	연평균 증감율
D15	음식료품 제조업	107,350.0	187350.34	6.4
D16	담배 제조업	0.0	0.0	0.0
D17	섬유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외	0.0	0.0	0.0
D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20	0.0	⇩
D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0	0.0	0.0
D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0	4.9	0.0
D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610	6,996.1	4.7
D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	0.0	0.0
D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0	0.0	0.0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0	1,581	⇧
D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510	0.0	⇩
D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9,710	15,348.4	5.2
D27	제1차 금속산업	0.0	0.0	0.0
D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0	0.0	0.0
D29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0	0.0	0.0
D30	사무 계신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0.0	0.0	0.0
D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0	0.0	0.0
D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0	0.0	0.0
D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0	0.0	0.0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	0.0	0.0
D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	0.0	0.0
D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530	5,327.8	4.7
D37	재생원료 가공 처리업	0.0	0.0	0.0
제조업 합계*		129,940.0	227,823.4	6.4

* 주1 : 제조업합계는 기타제조업의 불변생산액을 포함한 것임

12. 순창군

순창군의 제조업은 1995~2004년 사이에 불변생산액이 15.4%로 증가하는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2> 순창군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

산업분류		불변생산액		
번호	산업명	1995년	2004년	연평균증감율
D15	음식료품 제조업	45,410	157,795.9	14.8
D16	담배 제조업	0.0	0.0	0.0
D17	섬유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외	0.0	0.0	0.0
D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0	0.0	0.0
D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0	0.0	0.0
D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0	0.0	0.0
D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	0.0	0.0
D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	0.0	0.0
D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0	0.0	0.0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0	0.0	0.0
D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0	0.0	0.0
D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490	10,287.5	23.9
D27	제1차 금속산업	0.0	0.0	0.0
D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0	0.0	0.0
D29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0	0.0	0.0
D30	사무 계신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0.0	0.0	0.0
D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0	0.0	0.0
D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0	0.0	0.0
D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0	0.0	0.0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	0.0	0.0
D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	0.0	0.0
D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0	16.0	⇧
D37	재생원료 가공 처리업	0.0	0.0	0.0
제조업 합계*		46,900	169,780.2	15.4

* 주1 : 제조업합계는 기타제조업의 불변생산액을 포함한 것임

<표 3-12>에서 보는 것처럼 순창군의 제조업은 음식료품과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단순한 제조업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비금속광물제조업(24.8%), 음식료품 제조업(14.8%)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순창군은 최근의 기업유치 실적이 반영되어 비금속광물제품, 음식료제품에서 특화되어 있다.

13. 고창군

고창군의 제조업은 1995년~2004년 사이에 불변생산액이 12.3%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3>과 같이 불변생산액을 계산한 결과 고창군의 제조업은 음식료품과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이 주를 이루는 단순한 제조업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음식료품 제조업(11.2%), 비금속광물제조업(6.5%)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4년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창군은 음식료품, 비금속광물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다.

<표 3-13> 고창군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

산업분류		불변생산액		
번호	산업명	1995년	2004년	연평균 증감율
D15	음식료품 제조업	49,570	129,189.4	11.2
D16	담배 제조업	0.0	0.0	0.0
D17	섬유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외	0.0	0.0	0.0
D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0	0.0	0.0
D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0	0.0	0.0
D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0	0.0	0.0
D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	0.0	0.0
D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	0.0	0.0
D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0	0.0	0.0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0	5,866.5	⇧
D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0	0.0	0.0
D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4,750	25,890.1	6.5
D27	제1차 금속산업	0.0	0.0	0.0
D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0	0.0	0.0
D29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0	0.0	0.0
D30	사무 계신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0.0	0.0	0.0
D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0	0.0	0.0
D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0	0.0	0.0
D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0	0.0	0.0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	0.0	0.0
D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	0.0	0.0
D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0	0.0	0.0
D37	재생원료 가공 처리업	0.0	0.0	0.0
제조업 합계*		64,310.0	182,261.0	12.3

* 주1 : 제조업합계는 기타제조업의 불변생산액을 포함한 것임

14. 부안군

부안군의 제조업은 1995년~2004년 사이에 불변생산액이 14.6%로 추세성장전망을 하였다(<표 3-14>참조). 부안군은 음식료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이 조립금속제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음식료품, 비금속광물제품이 특성화 되어 있고, 향후에는 에너지관련 제조업의 비중과 전망이 밝다.

<표 3-14> 부안군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불변생산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

산업분류		불변생산액		
번호	산업명	1995년	2004년	연평균 증감율
D15	음식료품 제조업	47,610	155,860.9	14.1
D16	담배 제조업	0.0	0.0	0.0
D17	섬유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외	0.0	0.0	0.0
D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0	0.0	0.0
D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0	0.0	0.0
D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0	0.0	0.0
D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	0.0	0.0
D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	0.0	0.0
D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0	0.0	0.0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0	0.0	0.0
D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0	2,154.1	⇧
D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9,350	21,067.7	0.9
D27	제1차 금속산업	0.0	0.0	0.0
D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0	727.2	⇧
D29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0	0.0	0.0
D30	사무 계신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0.0	0.0	0.0
D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0	0.0	0.0
D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0	0.0	0.0
D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0	0.0	0.0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	0.0	0.0
D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	0.0	0.0
D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0	0.0	0.0
D37	재생원료 가공 처리업	0.0	0.0	0.0
제조업 합계*		66,960.0	227,832.2	14.6

* 주1 : 제조업합계는 기타제조업의 불변생산액을 포함한 것임

제2절 산업집적지 분석

1. 분석방법

산업집적의 관점에서 전라북도의 산업집적지를 확인(식별)하고, 각 산업집적지의 평가를 통한 유형화를 시도하기 위해 먼저 분석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상의 성장유망산업에 한정하도록 한다. 성장유망산업은 산업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9개의 업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대상산업을 9개의 성장유망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동 산업들이 지역산업정책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집적지를 분석을 위한 지역단위는 14개 각 시군에 기반으로 하였다. 산업집적지의 확인 및 유형화는 1단계 산업집적지의 확인, 2단계 산업집적지 평가, 3단계 산업집적지의 유형화를 거쳐 이루어진다. 먼저 산업집적지 확인방법은 산업의 지리적 집중도와 특화도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한다. 산업집적지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해서는 유관기업들이 일정지역에 군집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동 산업에 특화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의 집중도는 지역군집 형성의 조건으로서 산업별 생산액 및 종사자수 기준 전국대비 비중이 1% 이상인 시·군이면서 각 시·군별로 최소한 5개 이상의 사업체수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산업의 특화도는 종사자수 기준의 특화계수가 1.25이상인 경우를 산업의 집적지로 식별한다. 다만, 특화계수가 1.2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1.00이상이면서 산업의 집중도가 1%보다도 훨씬 높은 경우에는 산업집적지로 식별하였다. 각 시·군별로 확인된 산업집적지는 사업체의 지역적 분포양태와 산업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인접 시·군을 하나의 집적지로 묶었다.

2. 산업집적지 확인

<표 3-15> 산업집적지 확인 결과(2004)

[단위 : %, 개, 명]

산 업	집적 시·군	집중도[1]		특화계수[2]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화학제품	전주시	0.717	0.3	2.963	47	1,054
	군산시	0.713	0.5	4.790	69	1,704
	익산시	1.051	0.8	7.289	95	2,593
	정읍시	0.114	0.2	1.985	48	706
	김제시	0.050	0.1	1.403	55	499
	완주군	0.803	0.6	5.529	39	1,967
제1차금속	군산시	1.410	1.5	21.874	13	1,724
	익산시	0.159	0.4	6.166	10	486
	정읍시	0.103	0.1	2.068	5	163
	김제시	0.017	0.1	1.497	6	118
금속제품	군산시	0.119	0.2	1.312	138	561
	익산시	0.332	0.5	2.400	158	1,026
일반기계	정읍시	0.301	0.4	2.423	26	1,085
전기, 전자기기	전주시	0.049	0.1	1.613	96	542
	익산시	0.011	0.6	9.014	75	3029
	정읍시	0.273	0.1	2.125	14	714
	완주군	0.036	0.1	2.187	7	735
수송장비	군산시	2.560	1.0	27.196	51	3,633
	익산시	0.528	0.7	17.344	50	2,317
	정읍시	0.036	0.1	1.677	10	224
	김제시	0.179	0.3	8.624	27	1,152
	완주군	1.178	1.3	35.108	41	4,690

자료 : 전라북도, 2004년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2005.12

주 : 1) 집중도는 전국대비 당해 집적 시·군의 비중을 의미

2) 특화계수는 종사자수 기준

전라북도의 산업집적지는 6개분야의 22개 산업집적지에서 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5>참조). 전주시는 2개분야(화학제품, 전기・전자기기), 군산시 4개분야(화학제품, 제1차금속, 금속제품, 자동차 및 수송장비), 익산시는 5개분야(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및 수송장비), 정읍시 5개분야(화학제품, 제1차금속,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및 수송장비), 김제시의 3개분야(화학제품, 제1차금속, 수송장비), 마지막으로 완주군의 3개분야(화학제품,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및 수송장비)이다.

3. 산업집적지 평가

산업집적지를 평가함에 있어 성장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는데 성장성은 기업체수, 근로자수, 생산액의 증감에 따라 생산성은 분류항목의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표 3-16> 지역별 산업집적지의 성장성과 생산성

성장성 \ 생산성	낮음	중간	높음
높음	화학제품-군산	화학제품-익산	화학제품-정읍, 완주 수송장비-군산, 김제 일반기계-정읍
중간	전기전자-익산 화학제품-김제 제1차금속-김제 수송장비-완주	제1차금속-군산 전기전자-전주	금속제품- 군산 제1차금속-정읍 수송장비-남원, 익산 전기전자-완주
낮음	화학제품-전주		제1차금속-익산 전기전자-정읍

<표 3-16>은 성장성과 생산성을 분류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생산성과 성장성도 높은 업종으로는 화학제품분야의 정읍과 완주, 수송장비 분야의 군산과 김제, 일반기계분야의 정읍으로 나타났으며 성장성은 높으나 생산성은 낮은 분야로는 화학제품의 군산산업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성은 높으나 성장성이 낮은 분야로는 제1차금속의 익산, 전기전자의 정읍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성장성과 생산성이 모두 낮은 분야는 화학제품의 전주산업단지와 일반기계분야의 익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산업집적지 유형화

<표 3-17>은 전북지역의 산업집적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핵심집적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망집적지로는 군산의 자동차 및 수송·장비산업과 제1차 금속산업, 완주의 수송·장비산업으로 분류되었다. 확립단계인 산업을 살펴보면 전주의 전기전자, 금속제품, 일반기계, 군산의 금속제품, 화학제품 익산의 전기전자, 제1차 금속산업 등으로 나타난다. 전북지역의 일반집적지 중 쇠퇴단계에 있는 산업으로는 전주의 화학제품, 익산의 금속제품과 일반기계분야, 정읍의 자동차·수송장비산업과 전기전자분야를 들 수 있다.

<표 3-17> 지역별 산업집적지의 발전단계와 수준

	초기	확립	성숙	쇠퇴
핵심 집적지				
유망 집적지		제1차금속-군산 수송장비-군산	수송장비-완주	
일반 집적지	전기전자-완주 제1차금속-김제, 정읍	수송장비 - 김제 전기전자 - 전주, 익산 금속제품 - 군산 제1차금속 - 익산 일반기계 - 정읍 화학제품 - 군산, 정읍, 김제, 완주	익산-화학제품, 전기전자	전주 - 화학제품 익산 - 금속제품, 정읍 - 수송장비, 전기전자

발전단계

제3절 시·군별 기업유치 업종분석

1. 전주시

<표 3-18> 전주시의 유망업종 선정

구 분	생산불변액 추이	산업집적지 분석	시·군 상위계획
음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불변생산액과 입지계수를 이용한 유망업종의 분석결과 전주시는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섬유제조업에서도 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공업이나 기계제조의 제조업형태에서 최근 고부가치의 기계나 첨단부품소재의 제조업의 증가로 인해 전자부품이나 의료기기형태의 첨단산업

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군산시

두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산시의 유망업종은 전반적인 일치도를 보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대한 전망이 매우 높으며, 목재 및 제품 제조업, 1차 금속산업에 대한 전망도 좋은 편이다.

<표 3-19> 군산시의 유망업종 선정

구 분	불변생산액 추이	산업집적지 분석	시·군 상위계획
음식료품제조업			◎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제1차 금속산업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3. 익산시

익산시의 유망업종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불변생산액을 이용한 산업전망의 경우에는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과 1차 금속산업에 대한 전망이 높았으나 입지계수를 이용한 결과에서는 전기기계나 전자제품 제조업에 대한 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시군유치계획을 반영한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전망이 밝으며 완주, 군산을 연계한 자동차 트레일러 및 의료 첨단장비에 대한 전망도 좋다고 볼 수 있다.

<표 3-20> 익산시의 유망업종 선정

구 분	산업구조전망	입지계수	시·군 상위계획
음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4. 정읍시

정읍시의 유망업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정읍시의 경우는 전망산업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자료가 일치하는 점을 토대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에 대한 전망도 밝다고 볼 수 있으나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전망이 가장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읍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도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타 산업에 비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음식료품제조업도 시군의 유치계획과 더불어 입지계수상에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1> 정읍시의 유망업종 선정

구 분	불변생산액 추이	산업집적지 분석	시·군 상위계획
음식료품제조업		○	◎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5. 남원시

남원시의 유망업종 분석의 결과, 남원시는 음식료품에 대한 전망의 좋음에 일치하고 있으며, 많은 일치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이 우위에 있는 업종이며 시군의 유치계획에 의한 전망의 노력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제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유치업종 전망에 대한 좋은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표 3-22> 남원시의 유망업종 선정

구 분	불변생산액 추이	산업집직지 분석	시·군 상위계획
음식료품제조업	◎	○	◎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6. 김제시

김제시의 유망업종에 대한 분석 결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산업은 산업구조전망과 시·군 계획과의 정합성에서 높은 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음식료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3가지 분석모두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금속산업과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에서도 높지는 않지만 좋은 전망은 좋은 것으로 예측된다.

<표 3-23> 김제시의 유망업종 선정

구 분	불변생산액 추이	산업집적지분석	시·군 상위계획
음식료품제조업	○	○	○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7. 완주군

완주군의 유망업종의 분석 결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업이 분석자료 모두에서 매우 높은 유망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완주군의 유망업종 선정

구 분	불변생산액 추이	산업집적지 분석	시·군 상위계획
음식료품제조업		△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8. 진안군

진안군의 유망업종은 음식료품제조업에서 분석자료 모두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도 다른 제조업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5> 진안군 유망업종 선정

구 분	불변생산액 추이	산업집적지 분석	시·군 상위계획
음식료품제조업	◎	◎	◎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9. 무주군

무주군의 유망업종은 음식료품제조업에서 분석자료 모두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도 다른 제조업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6> 무주군의 유망업종 선정

구 분	불변생산액 추이	산업집적지 분석	시·군 상위계획
음식료품제조업	◎	○	◎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10. 장수군

장수군의 유망업종은 음식료품제조업에서 분석자료 모두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으며 목재 및 나무제품은 입지계수상에서 산업구조 전망은 낮지만 입지계수상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은 불변생산액 추이, 산업집적지 분석, 시·군상위계획에서 음식료품이 직접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장수군의 유망업종 선정

구 분	불변생산액 추이	산업집적지 분석	시·군 상위계획
음식료품제조업	◎	○	◎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11. 임실군

임실군의 유망업종은 음식료품제조업에서 분석자료의 좋은 전망 결과를 나타냈으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도 다른 제조업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임실군은 음식료품에서 특성화를 보이고 있으며, 음식료품중에서 발효식품이 특성화 되어있다.

<표 3-28> 임실군의 유망업종 선정

구 분	불변생산액 추이	산업집적지 분석	시·군 상위계획
음식료품제조업	◎	◎	◎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12. 순창군

순창군의 유망업종은 음식료품제조업에서 분석자료의 좋은 전망 결과를 나타냈으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도 다른 제조업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순창군은 기능성 건강식품에서 불변생산액 추이, 산업집적지분석, 시·군 상위계획에서 음식료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화되어 있다.

또한 생산불변액 추이에서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에서 특화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9> 순창군의 유망업종 선정

구 분	불변생산액 추이	산업집적지 분석	시·군 상위계획
음식료품제조업	◎	◎	◎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13. 고창군

고창군의 유망업종은 음식료품제조업에서 분석자료 모두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도 다른 제조업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창군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에서 일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0> 고창군의 유망업종 선정

구 분	불변생산액 추이	산업집적지 분석	시·군 상위계획
음식료품제조업	◎	◎	◎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14. 부안군

부안군의 유망업종은 음식료품제조업에서 분석자료 모두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내냈으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도 다른 제조업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불변생산액 추이에서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에서 특화도를 보이고 있고, 비금속광물제품에서도 특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1> 부안군의 유망업종 선정

구 분	불변생산액추이	산업집적지분석	시·군 상위계획
음식료품제조업	◎	◎	◎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제4절 권역별 기업유치 업종 분석

1. 전주・완주권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북발전의 핵심거점으로 행정 및 중추관리 기능, 농업생명산업 연구개발 및 첨단부품・소재산업 등의 첨단산업의 중심지, 지식기반 서비스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 환황해권의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기위한 지역내 행정 및 중추관리기능과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농업・생명산업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육성, BT・NT・IT를 융합한 첨단부품・소재산업의 기업유치가 필요하다.

2. 군산・익산・김제(일부)권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여 군장산업단지, 군장신항, 군산자유무역지역, 새만금지구 등 환황해경제권의 첨단산업거점, 국제교역 및 물류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환황해경제권의 전라북도 대중국 및 세계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를 위해 국제교류의 거점 및 생산기반을 중점 조성, 군산~익산~전주로 이어지는 연담도시권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광역도시교통체계 및 광역도시기반시설을 구축, 권역 내 새만금지역을 대규모 임해형 첨단산업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대 중국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부품소재, 식품산업, IT산업 등의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에 관련한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

3. 정읍・김제・고창・부안권

생태영농・복합휴양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형 첨단생태농업 및 생명산업을 육성한다. 전북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호남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서는 정읍시를 생명산업 및 방사선융합 기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에 필요한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 또한 음식료품 생물・생명산업도 육성한다.

4. 임실・남원・순창권

식품산업・전통문화권을 형성하여 전통문화 전수 및 문화체험 관광기능, 전통적 지연산업 육성과 내륙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인접 시・군과의 협력과 제휴를 통한 산업을 육성한다. 남원시가 권역내 중심 산업 기능을 수행하여 중심대도시권과의 통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음식료품, 치즈, 장류, 허브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5. 무주・진안・장수권

동부산악지역을 스포츠・레저를 중심으로 한 산악청정・관광레저 및 휴양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고랭지기후의 청정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 농업특산물 생산지역이다. 권역 내 자족적인 중심거점 기반이 취약 하므로 권역 내 거점지역 상호간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여 집적기반을 갖춘 서비스시설을 확충하며, 전라북도 지역 내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중심대도시권과의 연결성 제고를 위한 고속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방, 청정 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한다.



<그림 3-1> 권역별 기업유치 업종

각 시·군 지역의 제조업에 관한 유망업종을 분석하여 본 결과, 지리적 위치(동부, 서부) 및 시 단위와 군단위의 유망업종이 확연히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기계, 섬유업, 출판업에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립금속이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등의 첨단산업의 상승세로 나타났고, 서부권은 군산, 익산, 완주, 김제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 이 유망업종의 상승세로 나타났다. 군단위의 제조업 유망업종은 완주군을 제외하고는 음식료품에 대한 유치 희망과 현 제조업구조로 인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금속광물제품의 상승세로 나타났다.

제 4 장

이전수요기업 실태 및 조사

- 제1절 이전대상기업의 수요실태분석
- 제2절 전라북도의 입지환경조사

제4장 이전수요기업 실태 및 조사

제1절 이전대상기업의 수요실태 분석

1.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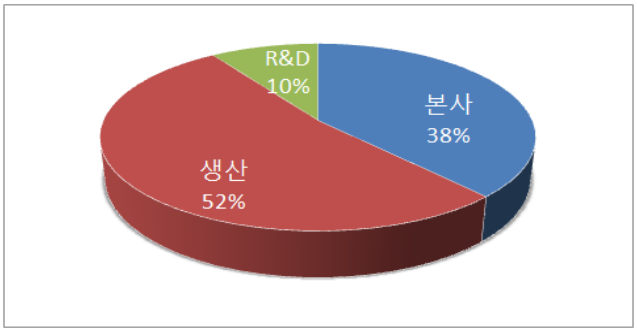
본 설문조사 실시의 목적은 전북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기업체와 공장을 설립한 업체를 대상으로 본사 및 공장의 이전 동기와 전북의 입지 만족도를 살펴보고 전라북도의 투자인센티브의 대한 질문과 이의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조사는 전북지역으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 의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2월 20일에서 2007년 3월 20일까지 30일간 충남월산 산업단지 및 수도권 지역의 인천의 남동공단에 소재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체 CEO 및 고위관리자를 상대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패키지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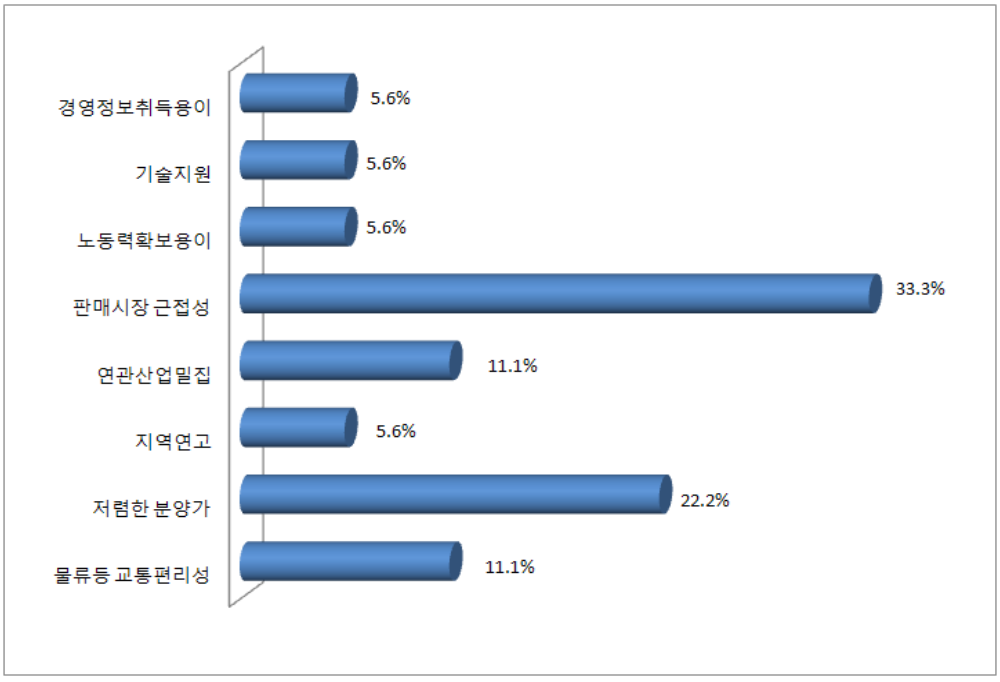
2. 결과 분석

설문조사에 응한 대상기업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복수응답을 허용한 설문의 응답은 52%의 회사가 생산기능이었고, 본사기능이 38%, 그 나머지가 연구개발 기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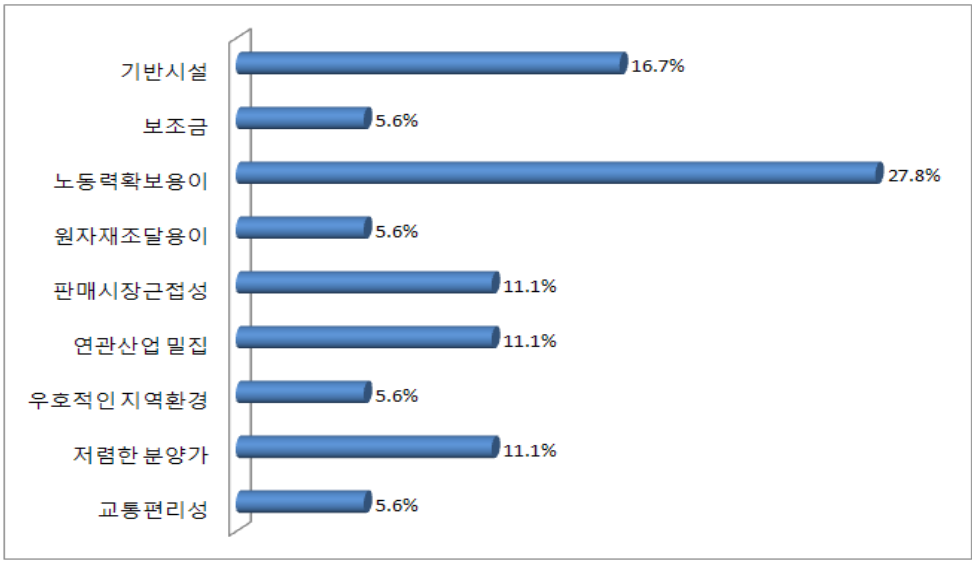
<그림 4-1> 설문대상회사의 수행업무

현재 입주한 산업단지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중요도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분석해본 결과 1순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가 판매시장의 근접성이 33.3%이고 두 번째 요소는 저렴한 분양가로 22.2%이고 셋째가 연관산업의 밀집과 고속도로, 철도 등의 교통 편의성이 모두 11.1%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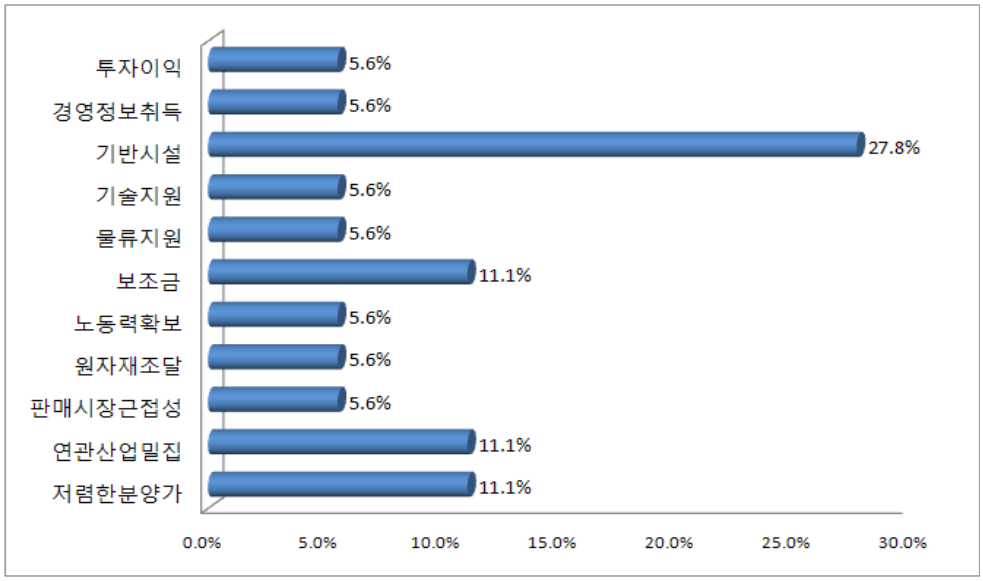
<그림 4-2> 현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된 요인 1순위

현재 입주한 산업단지를 결정하게 된 2순위의 설문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노동력확보 용이가 27.8%로 가장 높았고 산업단지의 기반시설활용 용이성이 16.7%로 조사되었다. 저렴한 분양가, 연관산업의 밀집, 판매시장의 근접성이 11%정도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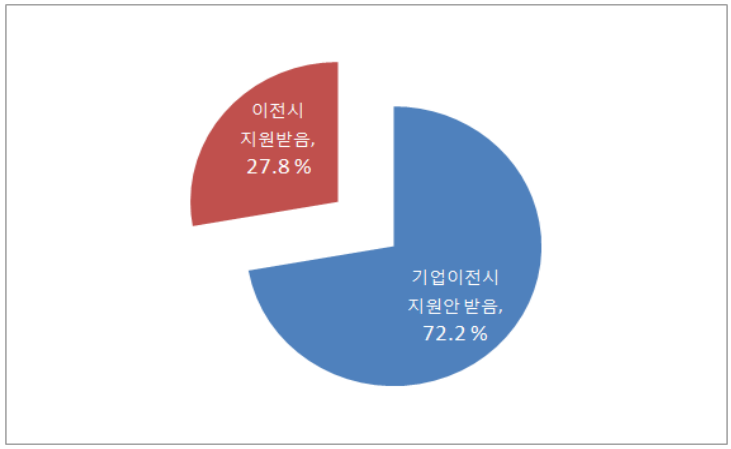
<그림 4-3>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된 요인 2순위

현 산업단지를 결정하게 된 3순위의 설문결과, 기반시설(27.8%)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높은 요소는 저렴한 분양가, 연관산업의 밀집도, 보조금지원이 모두 11.1%에 해당되는 요소이다.



<그림 4-4> 단지에 입주하게 된 요인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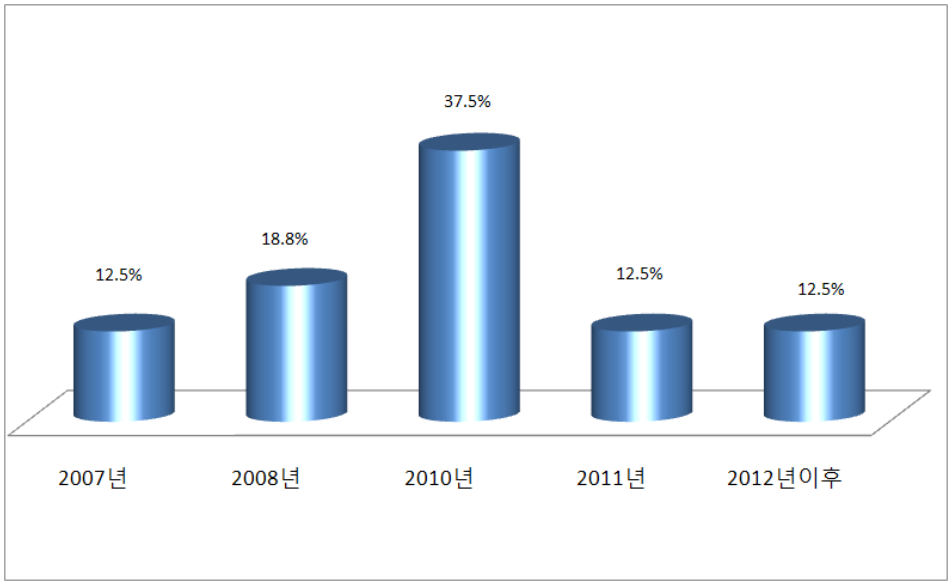
현재 위치한 사업장소는 대체적으로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주할 당시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회사는 27.8%라고 대답한 반면 지원받지 못한 회사는 72.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원받은 정책으로는 경영안정자금, 등록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감면 지원, 운전자금, 보조금 지급 등이었다.



<그림 4-5> 현 사업장소로 이전시 관할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여부

인터뷰를 시도하여 파악하여 본 결과 타 산업단지로 이전을 고려하는 업체는 83.3%였고, 이중 이전하려는 이유가 현 산업단지에 새로운 국가계획으로 인하여 이전을 고려하는 업체가 40%, 현 장소가 협소하여 이전을 고려하는 업체의 비율이 46%였다. 이전하려는 기업은 주로 계획입지(기업도시, 산업단지 등)를 93%가 선호하여 높게 나타났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계획입지를 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토지 및 공장의 처분의 용이가 73.3%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자산증식 효과, 20% 원하는 시기, 장소, 적정규모의 공장부지 확보가 13.3%의 선호도를 보였다. 이전을 계획할 경우 입주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장부지가 86.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판매시설, 연구소, 물류센터 등도 기타의견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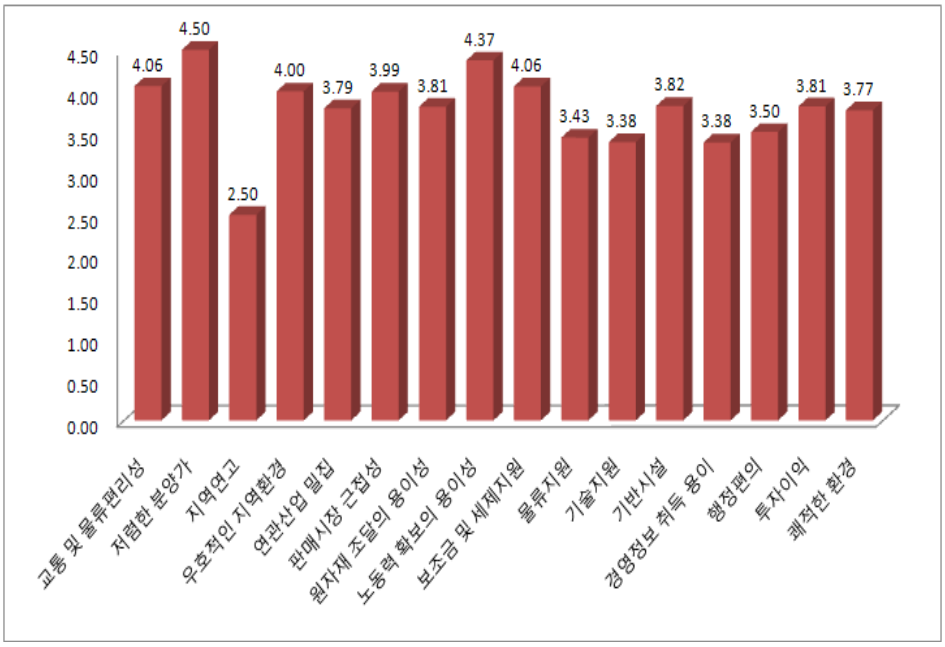
이전할 기업이 원하는 토지는 500평~20,000평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는 5,100평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건물은 200평~7000평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는 2000평의 공급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전시기에 관한 조사결과로는 2010년이 37.5%로 가장 많았고 2008년이 18.8%로 나타났다.



<그림 4-6> 이전시기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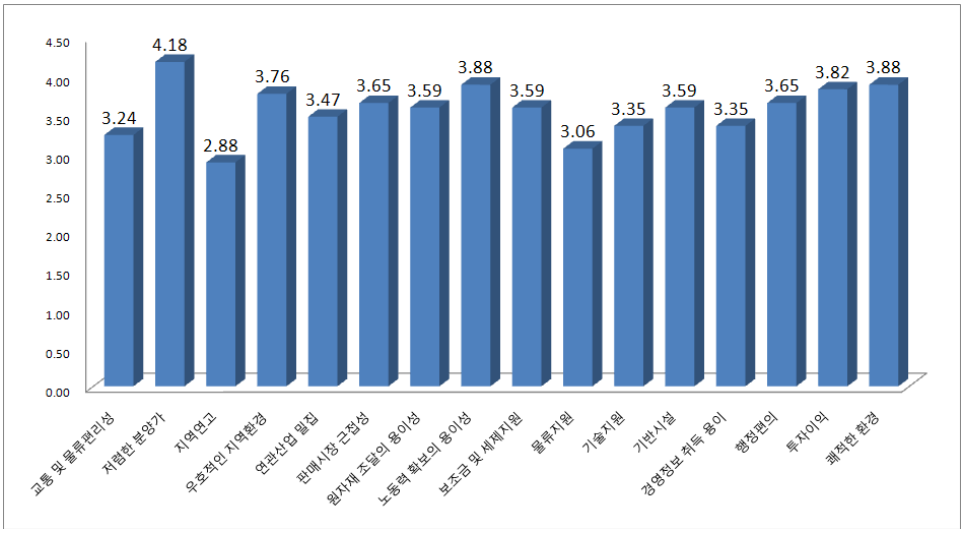
이전을 계획할 경우 고려하는 항목의 중요도를 조사해본 결과, 저렴한 분양가(4.5)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노동력확보의 용이성(4.37)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전을 생각하는 업체들은 물류비 절감을 위한 교통의 편리성(4.06), 이전하는 지자체의 세제지원 및 보조금 우대정책(4.06)도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할 지역민들의 기업우호적인 환경(4.0), 판매시장의 근접성(3.99) 등도 이전 시 고려되는 주요항목들로 고려되는 반면 지역연고(2.5)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4-7> 참조).

금번 설문에 응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가 이전기업을 활성화기 하기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부분에 관한 설문결과, 저렴한 분양가(4.18)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노동력확보 용이성(3.88), 교육 및 문화시설을 준비된 쾌적한 주변환경(3.88), 투자이익(3.82), 지역민들의 기업우호적인 환경(3.76)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하여 지역연고(2.88)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4-8> 참조).



주 :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별로중요하지 않음, 3-보통, 4-약간중요, 5-매우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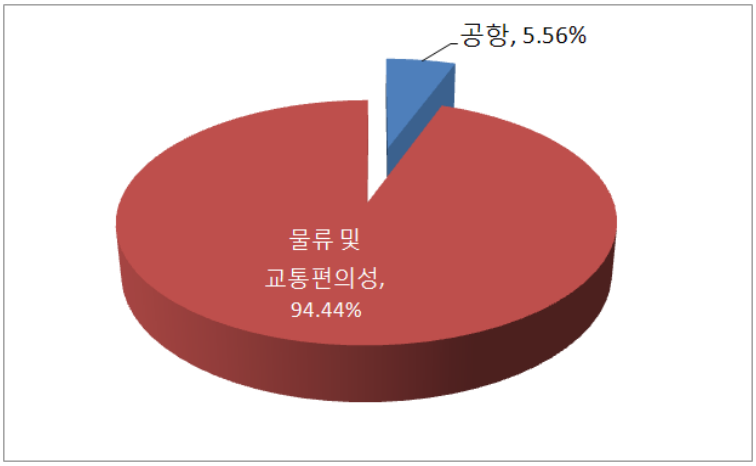
<그림 4-7> 이전부지 선정시 고려되는 항목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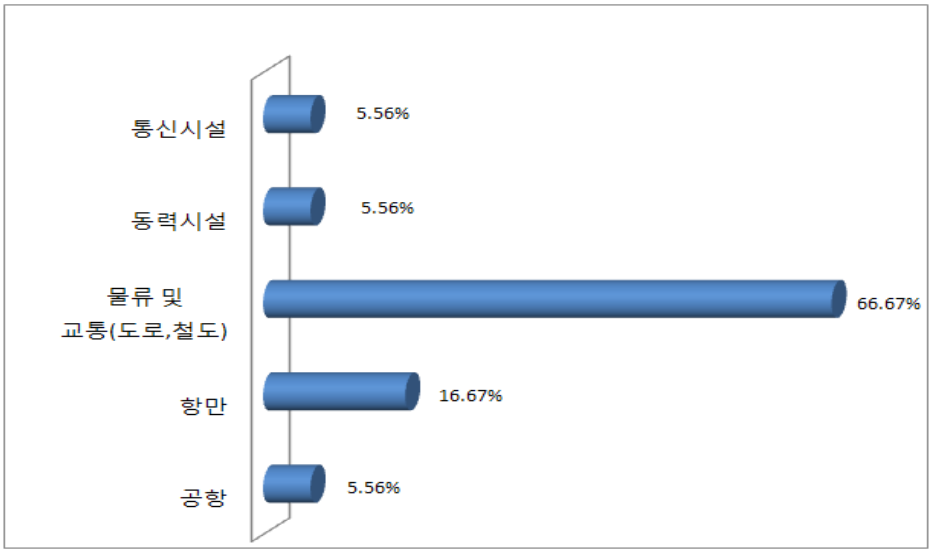
주 : 1-전혀중요하지 않음, 2-별로중요하지 않음, 3-보통, 4-약간중요, 5-매우중요

<그림 4-8> 전라북도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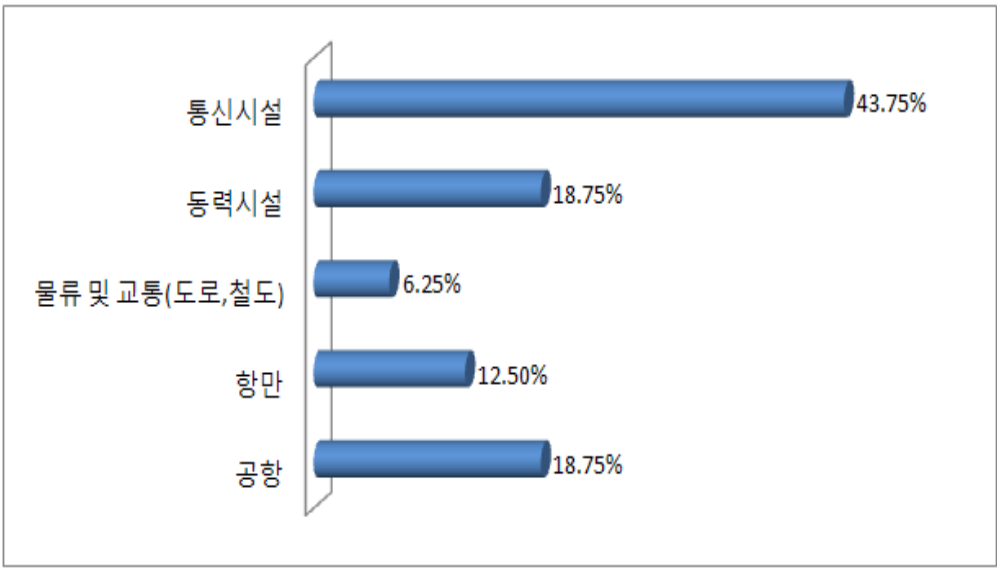
이전기업이 전라북도의 산업단지에 이주할 것을 가정할 경우 전라북도에 필요한 인프라에 관련된 항목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답변할 수 있도록 설문한 결과 1순위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물류 및 교통 편의성(94.44%)을 꼽았으며 그 다음이 공항(5.56%)이었다. 2순위에서도 물류를 위한 교통편의성(66.67%)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항만(16.67%)였다. 3순위에서는 통신시설(43.75%)이 가장 높았고 동력시설(18.75%)과 공항(18.75%)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9> 기업이전활성화를 위한 1순위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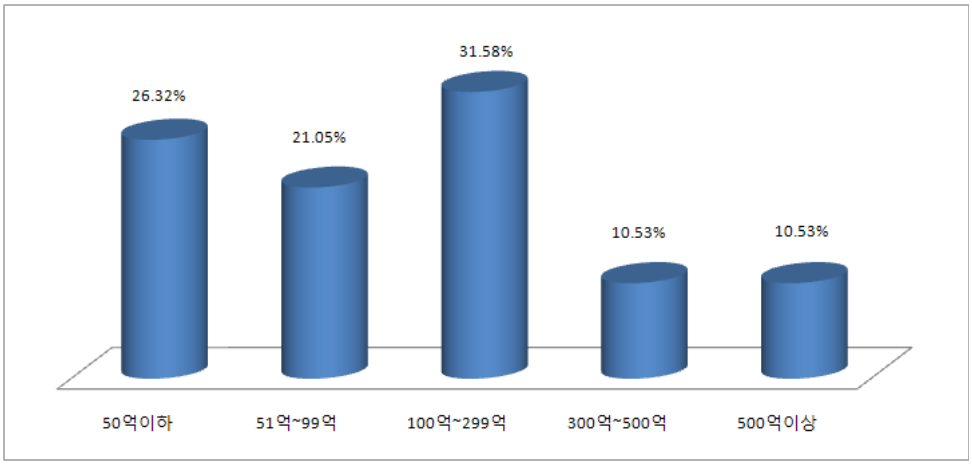


<그림 4-10> 기업이전활성화를 위한 2순위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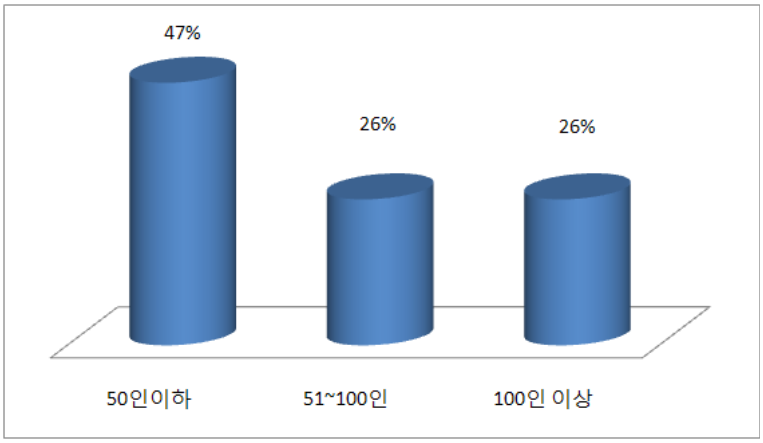
<그림 4-11> 기업이전활성화를 위한 3순위 인프라

전라북도에서 기업이전대상에 지원해야 할 지원책에 관한 조사로서는 용지구입을 저렴하고 노동력확보의 용이성, 공장설립에 관한 행정편의 및 간소화, 차별화된 세제혜택, 관련산업에 관한 정보의 신속화 기술지원 등에 관한 것 이었다.



<그림 4-12> 설문에 응한 기업들의 연간매출액 현황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한 기업 정보를 분석해보면 주로 제조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부품·소재 제조업 차지하는 비중이 84.21%이고 식품산업이 15.8%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100억~300억이 31.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0억 이하로 영세규모에 속하는 업체가 26.32%를 차지하고 있다. 500억 이상도 10.5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건물은 평균 2,000평 대지 면적은 3,600평으로 응답하였다. 종업원수로 구분하면 50인 이하 기업이 47.4%, 51인~100인 이하가 26.3%, 100인 이상이 26.3%를 차지하였다.



<그림 4-13> 설문에 응한 기업들의 종업원수 현황

3. 기업체 면담결과

기업체명	항 목	내 용	비고
대산기업	기본정보	· 소재지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11 · 업종 : 의류악세사리 제조	
	상담내용	· 기업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물류 · 공장을 100%가동하는데 인력보충이 않됨 · 현재 이전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 → 전북지역의 교통편의성 설명 (항만, KTX, 고속도로, 김제공항 등)	
	제안전략	· 추후 투자유치단과 함께 사장을 직접만나 면담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현재 베트남을 공장을 신설하는 중. 국내에서도 이전부지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음.	
일진소재산업(주)	기본정보	· 소재지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농공단지 4-8번지 · 업종 : 동박제조(Cu박(箔), Al박(箔))	
	상담내용	· 기업이전을 전북으로 고려하는 있는 상황 ·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잇점에 대해 설명함.	
	제안전략	· 추후 면담을 통하여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본사가 익산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전북이전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MOU체결 등 본격적인 활동 필요	
대승프론티어	기본정보	· 소재지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농공단지 3블럭 · 업종 : 유리병 등 유리제품	
	상담내용	· 2011년까지 생산을 유지하면서 있을 예정 · 아직 구체적으로 업체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 물류가 가장 중요	
	제안전략	· 전라북도 지역에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며 임대산단에 많은 관심을 보임	
미원상사조치원공장	기본정보	· 소재지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2-2 · 업종 : 샴프, 세정제	
	상담내용	· 완주 과학산단에 본사가 있는 상태	
	제안전략	· 본사를 방문하여 이전에 관한 확정	

기업체명	항 목	내 용	비고
에스앤디(S&D)	기본정보	·소재지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농공단지 4-8번지 ·업종 : 건강기능성 식품소재	
	상담내용	·현재 주위에 협력업체관계가 있어 이전할 수 없는 상태	
	제안전략	·지속적으로 관계성 유지 필요성	
바이오라이트	기본정보	·소재지 : 인천 남동공단 남촌동 ·업종 : 자동차용 램프	
	상담내용	·현재주로 유럽지역에 수출. 부산항에 많은 관련이 있음. (수출 80%, 국내 20%)	
	제안전략	·현재는 이전할 계획이 없는 상태이지만 꾸준한 관계상 유지. ·대중국수출의 주요거점으로써 전북을 소개할 필요가 있음.	
ICP	기본정보	·소재지 : 인천 남동공단 고잔동 672-2 7B 3L ·업종 : 트레일러	
	상담내용	·철도개설에 관심이 있음 ·현재 야적장이 필요함	
	제안전략	·전라북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관한 꾸준한 관계성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벤다 선광공업	기본정보	· 소재지 : 인천 남동공단 고잔동 · 업종 : 자동차 링기어(日本외투업체)	
	상담내용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중국 염성시 지역에 공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 ·전북의 중국위치 적합성 및 유럽지역 진출에 중요함	
	제안전략	·중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투자하게 될 경우 전라북도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	
세현정공	기본정보	·소재지 : 인천 남동공단 남촌동 ·업종 : 자동차 부품	
	상담내용	·동보의 자회사로써 현재 인천, 경주에 공장이 있는 상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자동차 부품)에 관한 설명과 아울러 대 중국의 입지 우수성에 대한 설명	
	제안전략	·현재는 이전할 계획이 없는 상태 ·대중국수출의 주요거점으로써 전북을 소개할 필요	

기업체명	항 목	내 용	비고
리얼 바이오텍	기본정보	· 소재지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농공단지 · 업종 : 건강기능성식품소재	
	상담내용	· 기능성식품인 레반을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식품업체와 화장품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있음	
	제안전략	· 지속적인 관심과 식품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유치	
더멋진 바이오텍	기본정보	· 소재지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농공단지 · 업종 : 기능성식품	
	상담내용	· 리얼바이오텍과 동반이전 · 정읍의 생명연구원 분원에 관심이 있음	
	제안전략	· 리얼바이오텍과 연계하여 유치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동AC	기본정보	· 소재지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농공단지 · 업종 : 제조업	
	상담내용	· 노장산업단지로 이전하기로 확정된 상태	
	제안전략	· 전라북도 정보만 주기적으로 제공	
CNA	기본정보	· 소재지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농공단지 · 업종 : 프라스틱 첨가제	
	상담내용	· 이전시 지급되는 보조금 관심이 있음	
	제안전략	· 전라북도 정보만 주기적으로 제공	
현대의약품 공업	기본정보	· 소재지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농공단지 · 업종 : 드링크류	
	상담내용	· 약품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써 생산라인 증설을 시도	
	제안전략	· 지속적인 홍보활동 필요	

기업체명	항 목	내 용	비고
동양 휠타산업	기본정보	· 소재지 :인천 남동공단내 · 업종 : 자동차 부품제조	
	상담내용	· 지방이전 시 사업채산성이 악화되어 지방이전 기피	
	제안전략	· 전라북도의 산업단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신진화학	기본정보	· 소재지 :인천 남동공단 내 · 업종 : 자동차부품제조	
	상담내용	· 자동차 사출성형을 하는 업체로 계열사인 자동차 완성차 납품 업체	
	제안전략	· 전라북도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대의테크	기본정보	· 소재지 :인천 남동공단 내 · 업종 : 자동품 부품 IP판넬	
	상담내용	· 자동차 부품인 IP판넬을 생산하는 업체 · 완성차와 네트워크 관계 필요	
	제안전략	· 전라북도의 홍보와 관리가 필요함	
유신정밀	기본정보	· 소재지 :인천 남동공단내 · 업종 : 자동차 부품	
	상담내용	· 자동차 엔진에 조립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 현대와 기아자동차에 납품하고 있음	
	제안전략	· 전라북도의 홍보 및 산업단지 정보제공 필요	
세화공업	기본정보	· 소재지 :인천 남동공단내 · 업종 : 자동차 부품	
	상담내용	·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현재 대우자동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임 · 내수 60%, 수출은 40%로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음	
	제안전략	·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함	

4. 실태결과의 시사점

1) 전북이전 가능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현재까지 지역 개발과 기업 관계는 협력 보다는 종속 또는 견제 형태를 견지해 왔다. 지역개발은 공공성 유지를 위해 영리 목적의 기업과 철저히 영역을 구분

하고 갑을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다. 도시가 공공성 유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토지이용, 기업여건 개선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왔다. 지역 개발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도 받게 되어 정책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지역 및 기업 이기주의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기업 유치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입지가 제약을 받거나 이와는 반대로 지나친 이윤 추구 목적으로 특정지역만을 고집하는 기업도 발생했다.

이렇듯 지역과 기업이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뢰 부족으로 융화되지 못하고 불신감 조성된 것이 사실이다. 기업은 지방 정부를 단순한 인허가권자로만 인식하는 반면 도시는 기업은 특혜 대상 내지는 지나친 이익추구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지자체의 기업 유치는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역과 기업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 정부의 무리한 기업 유치 경쟁 보다는 지역과 기업간 역할 분담 등으로 상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소프트한 측면에서도 도시와 기업의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기업이 입지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명도가 높은 기업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제공한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을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돕는 차원에서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학교운영, 산학연계 프로그램, 연구소 운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산학관 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방안이다.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프로그램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면 이 또한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지역행사에 기업참여 등 소프트 한 측면에서의 지역과 기업의 협력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유치전략의 수립

현실적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수도권 소재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노동집약형 제조업이 비용절감과 현지화를 경영목표로 세우고 있어 해외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대상 기업은 시장 지향적인 제조업 중 조립형 기업이 될 수 있으나 라이프사이클 단축과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빠르게 기술 집적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중국 시장의 빠른 신장세 등을 고려할 때 확실하고도 차별적인 비교 우위적 입지요소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지식기반산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고기술 집적형의 일부 IT업종을 제외한 단순조립업체의 경우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따라서 핵심부품개발, 고객 니즈(needs) 충족형 제품개발, 전통 제조업과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한 업종구조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업유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학연협력사업과 구조 고도화 사업은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대학에서도 현장 실무형 전문인력 공급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지역과 같이 공생한다는 자세와 각종 지역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기업밀착형 행정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산업단지 분양가를 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원 기숙사나 연수원을 건립토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야할 시점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투자와 비용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적의 생활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비교 우위적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3) 맞춤형 기업지원 시스템 정비

수도권 및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이 신나게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의 니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자신의 입주 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기업 욕구에 부응하는 신축적인 유인책을 제시하도록 조직을 정비향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기업유치관련 조직체계를 단일화하여 행정의 효율

성을 높이며 기업유치 우대 조례 제정, 매칭 펀드식의 기업유치기금의 조성, 산업입지 관련 분양가 인하 및 저가 공급 방안을 강구하고 수요자 중심의 입지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유치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며 투자유치 전문가 풀제를 운영하며 투자자문회사 설치 운영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팩키지 형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투자유치관련 조직간 시스템 경쟁력 강화등의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유치 대상 Target기업 선정 및 기획유치, 업종 선정 및 지원 기준의 체계화 및 Master Plan 수립, 연고업체 유치 및 투자 유도, 지역 유통업과 유치대상 유통업과의 보완적 연계기능 강화, 기업유치 관련 기관간 업무분담 및 협조 강화, 합작파트너 알선 및 공장용지 정보제공, 기업유치관련 협상능력 강화,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크 체계 강화 등을 통한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부품·소재, 식품 등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업 유치

외국인투자 유치는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질적 팽창을 위한 접근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개발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발전전략에 따른 신산업 유치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클러스터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오늘날 기업의 입맛에 맞는 투자여건은 해당지역이 산업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만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산업도 기존산업과 연관성이 크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타겟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의 집중적 투자유치를 통해서 혁신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유치된다면 타 지역의 국내기업도 해당지역으로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북은 자동차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어 전주-익산-군산을 있고 익산-김제-정읍을 잇는 부품소재 및 식품산업 광역 클러스터 조성을 실시하고 있

기 때문에 이 분야의 집중적인 투자유치가 절실하다.

5) 우수한 투자여건 이미지 창출 및 홍보

전북지역이 우수한 투자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투자여건이 우수하지도 않으면서 우수한 것처럼 포장해서는 이미지를 창출하기는커녕 투자 실행단계에서 더 나쁜 이미지만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전북의 투자환경 장점으로 내수 울 수 있는 내용으로 중국시장을 겨냥한 생산/물류 전진기지, 온건한 노동조합, 국내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하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저렴하고 광활한 공장부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전북지역의 우수한 투자여건의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물론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를 상대로 투지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 보다는 전북지역의 산업발전계획에 따른 투자유치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제1단계 : 투자 이미지 창출활동

- 전라북도가 부품·소재 전진기지의 매우 우수한 투자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활동
- 부품·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홍보활동과 부품·소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로드쇼, 홍보 브로셔의 작성 및 배포 등의 활동
- 홍보는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반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정된 일부 잠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이미지 향상과 투자에 필요한 신뢰성 제고 및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 확보

○ 활동유형

- 부품·소재 및 관련 경제 전문지를 이용한 광고
- 국제적 투자 전시회 개최
- 업종별 전문매체를 이용한 광고
-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세계적인 경제관련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 광고

○ 제 2단계: 투자유발 활동

- 투자유발 활동은 어떤 기업이 투자유치 지역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해당지역을 가능한 투자입지의 하나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 전문적인 상담기법과 마케팅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투자유치 전문가들이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투자를 설득해야 함
- 부품·소재 기업을 타겟기업으로 선정하고, 타겟기업에 대해 접근방식과 어떤 기법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모델설정

○ 활동유형

- 우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선전활동을 전개
- 부품·소재 또는 관련기업을 상대로 기업유치단 파견 또는 기업에 대한 초청 사업설명회
- 부품·소재 또는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 투자가능성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유치 프리젠테이션 개최

○ 제3단계: 투자 지원활동

- 투자지원활동은 투자기업이 최종적으로 투지를 결정한 이후부터 투자 실행과정 및 투자 이후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 투자기업의 기업 활동 현장에서 밀착하여 제반 애로 사항을 지원
- 부품·소재기업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모델의 정립

○ 활동 유형

- 이전결정을 위한 각종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활동
- 이전과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이전 이후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활동
- 이전기업의 임직원의 주거, 교육, 문화활동 등 각종 정주여건 개선 활동

제2절 전라북도의 입지환경 조사

1. 자료 수집

AHP는 일반적으로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평가로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전기업과 관련하여 학계, 행정기관의 전문가, 이전기업의 정책결정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다.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집단을 선정하였으며 학계 12명, 행정기관의 전문가 24명, 이전기업의 정책결정가 9명 등 총 45명을 평가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07년 3월 5일~9일(5일간)에 걸쳐 개별방문을 통해 연구내용 설명 및 자료집,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자료의 수집방법은 설문지를 통해 각 응답자의 직접방문을 통하여 설문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하여 회수한 44개 설문지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2. 평가항목 및 기준설정

기업입지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계층분석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활용하였다. 객관적인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주장과 판단을 객관적 절차를 통해 검증을 해야하는데 이때 AHP가 이러한 검증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평가기준이 다수의 요소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통합적 평가를 위해 적합한 기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HP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먼저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야할 수 있다. 첫째, 비교의 집합인 A에서 주어진 대안 i, j에서 의사결정자는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떤 두개의 비교요소에 대하여 비교를 시행할 때 의사결정자는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어떤 기준하에 무한하게 좋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문제는 계층으로 형성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주어진 의사결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준과 대안은 계층으

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모든 의사결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준과 대안은 계층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모든 의사결정자의 직관은 기준과 대안에 있어서 구조로 표현되어야 하고 직관과 조화되는 선호순위를 할당할 수 있다.

위의 4가지 원리는 AHP가 ① 의사결정문제를 계층적으로 형성하여 해결하며, ② 쌍대비교의 형태의 판단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AHP는 비교대상을 짝을 지워서 판단하게 함으로써 복잡한 의사결정문제를 단순화시켰으며,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표 4-1> 쌍대비교 평가 매트릭스

구분	A	B	C	D	가중치
A	a_{11}	a_{12}	a_{13}	a_{14}	w_1
B	a_{21}	a_{22}	a_{23}	a_{24}	w_2
C	a_{31}	a_{32}	a_{33}	a_{34}	w_3
D	a_{41}	a_{42}	a_{43}	a_{44}	w_4

$$a_{ij} = \frac{w_i}{w_j}, i, j = 1, \ldots, n, \quad a_{ij} a_{jk} = \frac{w_i}{w_j} \cdot \frac{w_j}{w_k} = \frac{w_i}{w_k} = a_{ik}$$

$$a_{ji} = \frac{w_j}{w_i} = \frac{1}{w_i / w_j} = \frac{1}{a_{ij}}$$

<표 4-2> 쌍대비교를 위한 비교요소간 척도

척도 값	의미
1	동등하게 중요
3	약간 중요
5	꽤 중요
7	아주 중요
9	절대적으로 중요

AHP의 적용절차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제의 구조화는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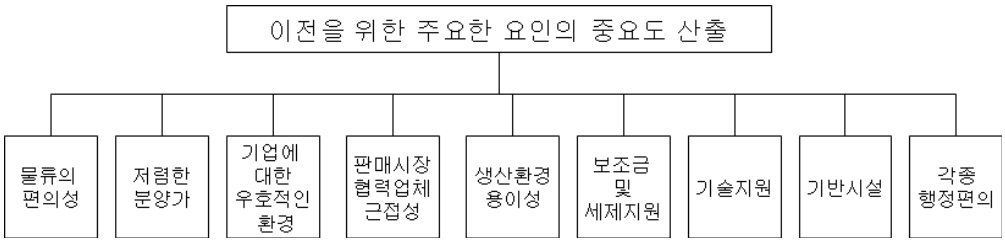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구성하는 중요한 속성 내지는 요소들에 대한 계층화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즉, 문제의 계층화는 의사결정문제를 분석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여기에는 문제 영역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두 번째, 쌍대비교를 이용한 의사결정자의 판단 단계는 문제를 분석적으로 파악한 후 평가작업을 하는 단계이며, 이 단계는 쌍대비교의 개념에 기초하여 요소들 사이의 우선순위 내지는 문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정도를 도출하게 된다. 즉, 계층의 한 수준에서의 요소들은 인접한 상위수준에 대한 중요성이나 기여도로 상대적인 측면에서 평가된다.

세 번째, 가능한 선택 대안들간에 최종순위 도출단계로써 쌍대비교로 평가된 우선순위를 AHP평가 목적에 관한 전체적인 우선순위로 계산하는 결합단계 과정이 전개된다.

3. 계층설정

계층구조화란 직접적으로 측정 혹은 평가하기 힘든 최종목적을 보다 단순화화여 측정·평가가 용이한 복수의 하위목적, 기준, 활동으로 분해하는 작업으로서 분해된 하위계층을 종합하면 상위계층의 윤곽을 형성할 수 있고 계층내의 중복이 배제되고 계층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상위 수준에 목표를 두고 두 번째 수준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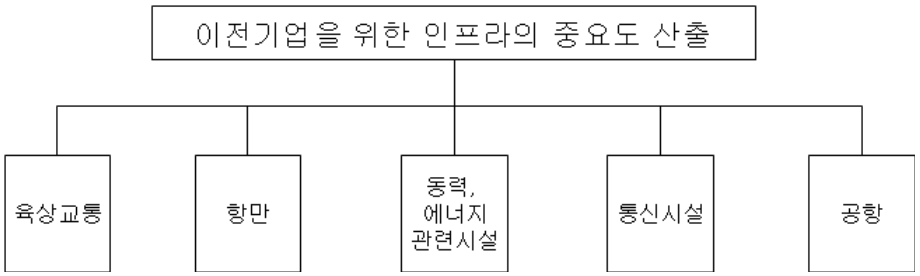


<그림 4-14> 이전기업의 중요도 산출을 위한 계층도

첫 번째로 설문조사 집단을 통하여 전라북도에 이전기업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이전을 위한 주요요인에 관한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

해 계층구조를 작성하였다(<그림 4-14>참조).

둘째로는 전라북도로의 이전을 위해 산업단지의 인프라구성을 위한 중요도 산출에 관하여 계층구조를 작성하면 <그림 4-15>와 같다.



<그림 4-15> 기업이전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도 산출

4. 상대적 중요도 결과

분석결과 전문가 집단에서 전라북도로의 이전기업 유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생산환경의 안정화(0.129)를 첫 번째로 뽑았다. 이는 기업의 주요기능인 생산환경요소의 안정화가 기업이전을 위해 가장 절실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중소기업은 질 높은 생산인력 확보와 원자재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생산성확보라는 측면이 반영되어 이 요소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거론한 부분이 바로 판매시장/협력업체의 근접성(0.127)인데 생산한 제품의 판매시장과 아울러 협력업체의 근접성이 이전입지로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북의 산업의 유사업종의 집적화나 부품, 소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업규모의 회사를 전북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이와 유관업체들을 이전해오도록 하는 유인책이 절실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기업의 기술지원(0.113) 즉, 산학협동, 기술지원센터, 경영정보 제공 등을 둘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경쟁이 날로 심해지는 무한경쟁의 경영환경에서 기술지원 등과 같은 요소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경쟁은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함은 물론 제조업체의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표 4-3> 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의 요소들의 중요도 산출결과

항목	상대적 중요도	순위
물류의 편리성	0.108	7
저렴한 분양가	0.085	9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교육, 주거)	0.111	4
판매시장/협력업체 근접성	0.127	2
생산환경(원자재조달, 노동력확보 용이성)	0.129	1
보조금 및 세제지원	0.111	4
기술지원(산학협동, 기술지원센터, 경영정보 등)	0.113	3
기반시설(통신, 전력, 용수, 폐기물 처리 등)	0.109	6
각종 행정편의 지원	0.105	8

그 외에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0.111) 즉, 교육 및 주거생활의 안정성과, 이전기업에 관련된 보조금 및 세제지원(0.111) 등을 들었다. 기업이전을 위해서는 2세 교육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기반시설(0.109), 물류의 편의성(0.108), 각종 행정편의(0.105), 저렴한 분양가(0.085)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4-4> 기업이전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도 산출결과

항목	상대적 중요도	순위
육상교통(도로, 철도)	0.437	1
항 만	0.231	2
동력, 에너지관련시설	0.143	3
공 항	0.113	4
통신시설	0.075	5

기업입지환경 조사 중 전라북도의 기업이전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프라에 관한 상대비교에서는 도로, 철도 등의 육상교통(0.43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의 물류이동수단으로 고속도로 등 육상교통에 의존함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높은 중요도는 항만(0.231)이었다. 항만의 경우는 주로 외국에 수

출하는 기업이 요구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항만활성화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 외에 동력·에너지 관련시설(0.143), 공항(0.113)로 나타났으며 통신시설(0.075)은 가장 낮은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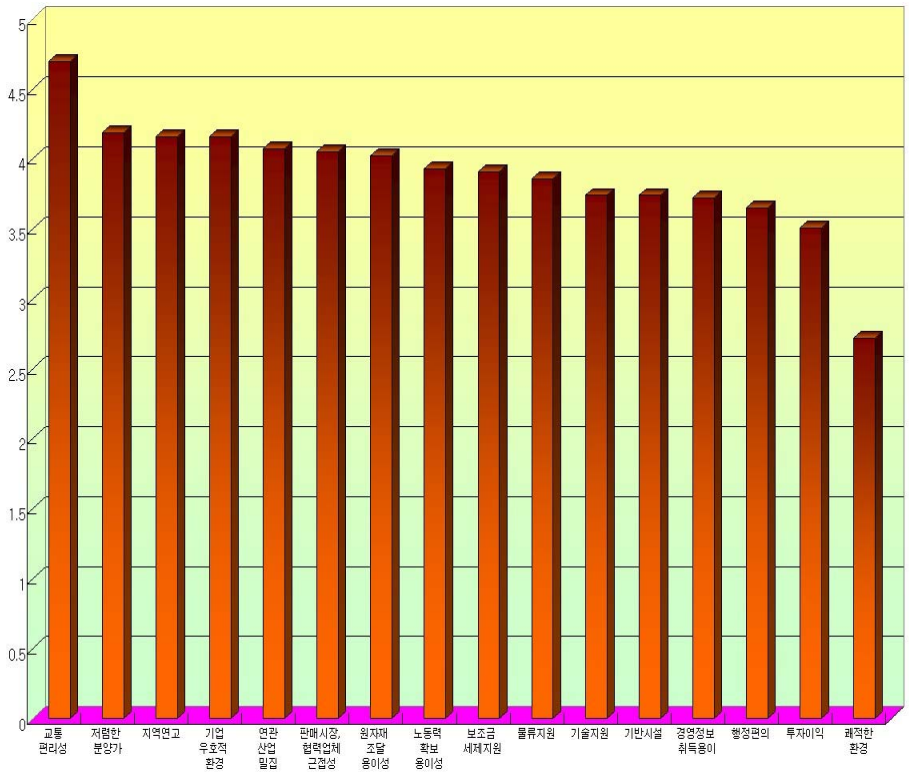
5. AHP분석 외의 설문결과

전라북도 기업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의 각 항목들에 대한 쌍대비교가 아닌 설문대상자의 중요도를 조사해 본 결과 항만, 공항, 철도역 등 물류 및 교통편리성(4.7)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저렴한 분양가 및 임대료(4.19), 지역연고(4.16), 기업우호적인 지역환경(4.16), 연관산업의 밀집(4.07), 판매시장 및 협력업체의 근접성(4.05), 원자재 조달의 용이성(4.02) 등으로 전문가 및 이전한 업체들은 앞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 기업이전시 고려되는 요소의 중요도

항 목	점수*
· 항만, 공항, 철도역 등 물류 및 교통편리성	4.70
· 저렴한 분양가 및 임대료	4.19
· 지역연고	4.16
· 기업 우호적인 지역환경(교육, 주거 포함)	4.16
· 연관산업 밀집	4.07
· 판매시장 및 협력업체 근접성	4.05
· 원자재 조달의 용이성	4.02
·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	3.93
· 보조금 및 세제지원	3.91
· 물류지원(공동 물류센터, 창고 등)	3.86
· 기술지원(산학협동, 기술지원센터 등)	3.74
· 기반시설(용수, 전력, 폐기물 처리 등) 사용용이	3.74
· 기술 및 경영정보 취득 용이	3.72
· 행정편의	3.65
· 투자이익	3.51
· 쾌적한 환경	2.72

*주1 : 전혀중요하지 않음-1, 별로중요하지 않음-2, 보통-3, 약간중요-4, 매우중요-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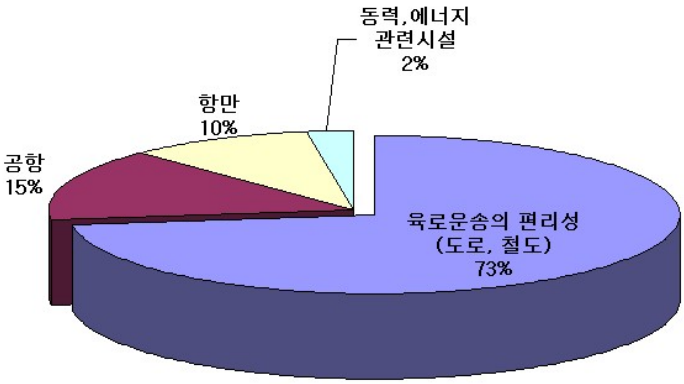


<그림 4-16> 기업유치를 위한 중요도 산출(설문대상자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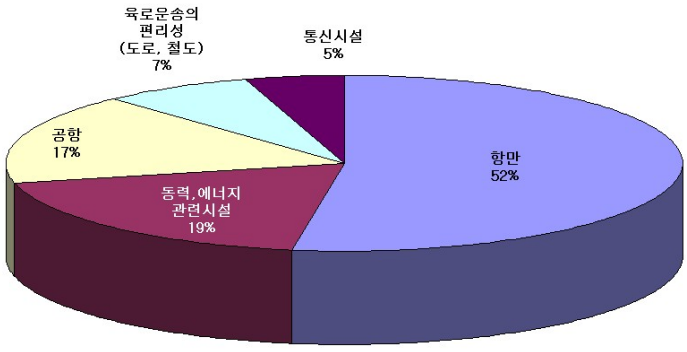
또한 '전라북도가 기업유치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인프라 3가지를 선택한다면 어떤 부분을 선택하겠는가?' 하는 설문에 1순위로 육로운송의 편리성(73.17%)을 선택했고 그 다음이 공항(14.63%)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항만이 52.38%, 동력·에너지관련 시설이 19.05%, 공항이 16.67%로 나타났으며 3순위에서는 동력·에너지시설이 36.84%, 공항이 23.68%를 차지했다.

<표 4-6> 설문대상자 전체에 대한 기업유치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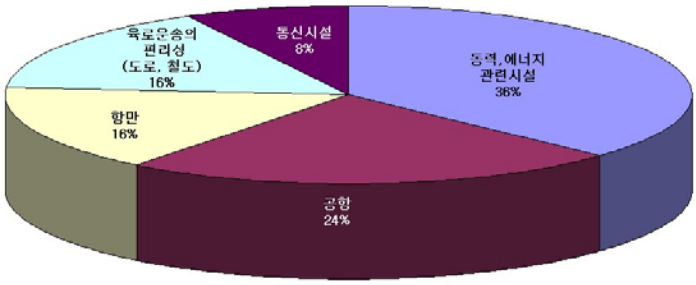
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공항	14.63	16.67	23.68
항만	9.76	52.38	15.79
육로운송의 편리성(도로, 철도)	73.17	7.14	15.79
동력,에너지 관련시설	2.44	19.05	36.84
통신시설	-	4.76	7.89



<그림 4-17>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1순위 인프라



<그림 4-18> 기업유치활성화를 위한 2순위 인프라



<그림 4-19> 기업유치활성화를 위한 3순위 인프라

6. 시사점

전라북도의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생산환경에 관한 고려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 각 기업들의 이윤창출을 위해서는 노동력 확보와 원자재 조달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역의 생산인력확보를 위한 생산인력 pool제나 등록제를 만들어 필요한 기업에 인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렴한 세제와 아울러 분쟁없는 노사관계, 시장 및 연관산업의 밀집도 등과 아울러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생산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으로 관련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산업체 생산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산업군 형성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을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기업에 필요한 편익시설 지원과 기업지원의 정보확충, 공항, 항만, 육류교통 등 물류의 편의성을 고려한 기반시설 확대가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라북도는 새만금이라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 추후 기업이전의 최적지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기업을 위한 친환경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함으로써 상생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자녀교육환경, 주거 및 정주 여건 확보, 문화시설 등의 주위환경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전할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안정화된

경영환경요소인데 이는 산학협력관계나 기술지원센터 등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한 품질수준확보와 가격경쟁력이 유사업종 혹은 동종업종에서 경쟁하는 중요한 항목이기에 이를 지원하여 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상품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마케팅 활성화 지원, 원자재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동의 부품공급망 확보 등에 대한 도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유치에 관한 행정지원, 이전한 기업에 대한 타 시·군과 차별화된 중소기업 운영자금과 같은 보조금 지원, 각종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아울러 이와 전라북도 기업유치의 최적지라는 점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복합형 산업단지 조성

현재 전라북도 환경관련 규제와 산업발전 기반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다른 시도보다 특히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역내 산업인력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전라북도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5년 2월 건교부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단편적인 개발사업방식 보다는 다양한 단지기능과 기반시설 등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Network형 종합개발방식에 의한 「지역복합개발지구」를 신설하도록 한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업단지의 조성과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에 레저·휴양이 가능하도록 「지역복합개발지구」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전략 및 첨단 산업 혁신클러스터의 구축

첫째, 산업단지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소 및 대기업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유치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산학연 연계에 의한 클러스터 구축이다.

산업단지 내에 주력산업이 입지할 경우, 관련 연구소와 대학의 유치도 필요하고, 특

히 대학의 단지 내 유치는 입주기업과의 산학연 공동프로젝트의 수행 및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사례로는 광주 첨단과학단지에 입지한 광주과학기술원이나, 동 단지로 연구시설을 입주시킨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을 들 수 있다. 외국에서는 공과대학이 산업단지내에 입주하여 관련 기업과의 활발한 인적교류 및 기술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이탈리아의 POINT(Pole for Technological Innovation)[5]는 베르가모 주정부가 1996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인데, 동 단지에서는 베르가모대학교 공과대학의 캠퍼스를 유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산업단지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정부출연 연구소를 유치하고, 연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지원시설을 설립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통한 활성화 지속 추진

농공단지는 분양가면에서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분양가의 1/3 이하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어서 가격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도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의 부족, 주변 생활여건의 열악 등 입지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다. 또한 농공단지내에는 영세업체들이 많아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휴폐업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 완제품, 단순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탈피하여, 전문성 있는 고부가가치 업종 중심으로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입주기업들은 주변 산업단지 등과 연계, 관련 업종을 계열화함으로써 전문단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에 입주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산물의 가공·보관·유통 등의 기능과 연계를 통해 지역특화 산업단지로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앞으로 현재 조성, 가동 중인 농공단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력하며, 소규모의 추가적인 농공단지 조성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하다. 기존의 농공단지는 일차적으로 지역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여 주민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그 외에도 기존 농공단지는 인근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원료지향적이면서, 지역

5) http://www.servitec.it

내 농특산물을 가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농공단지로 전문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인프라 시설구축 방향

(1) 도 로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와 산업단지간의 연계교통망을 확보하고 산업입지공급계획상 입지공급이 많은 지역에 대한 도로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단지 주변의 도시개발로 인한 교통체증 구간의 도로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2) 용수공급시설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신규 수자원 개발, 다목적댐의 연계운영 등 가용 수자원의 활용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하천의 공동이용 등을 추진이 필요하다.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용수수급계획 수립시 산업입지공급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서해안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하·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적정규모의 허·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국가지원을 확대한다.

(4) 철 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철도와의 연계수송체계를 확립하여 철도수송분담률을 제고해야 한다. 산업단지 집중 수요지역에 대한 접근 철도망을 확충함과 아울러 대규모 산업단지 인입철도 부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5) 항 만

산업생산품의 해상 수송율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 인근에 산업단지를 적극 유치하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국가에서 항만시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산업생산시설과 직접 연계되는 거점항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 항만시설의 확충은 물론 신규 항만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

(6) 공 항

공항과 권역별 거점물류를 연계하고, 고속·고급의 운송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항의 화물처리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생산품의 원활한 수출과 산업단지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공항과의 접근도로 확충을 추진해야 해야 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제1절 결 론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 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결 론

각 지역은 국적을 불문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외국 기업의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 유치는 그 긍정적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유치는 지역의 안정적 확보를 가능케 해준다. 직접투자는 채권 및 주식투자에 비해 안정성이 높아 외환위기 억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생산 및 고용의 증대 효과도 크며 수출 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와 아울러 기업들은 기술도입, R&D,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국내산업의 기술력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글로벌 경영, 투명 경영, 재무건전성 등 선진 경영기법을 국내에 접목시켜 국내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쟁촉진 효과를 가져와 산업구조조정에 기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기업유치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하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론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자금 등 투입요소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져야하고, 이에 따른 공장용지, 교통시설 등 인프라의 관리도 필요하다.

둘째, 노사관계 안정, 갈등 최소화 등으로 사회통합이 실현되어야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기업유치 시 노사관계관리제도 관련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투자인센티브 제안 및 투자환경 조성, 활발한 해외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문 유치기구의 구축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라북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이러한 효과가 투자유치로 연계하고, 기업들의 투자 동향 및 국내외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기업의 전라북도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집적경제에

따른 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의 직·간접적인 유인책의 제시와 더불어 보다 기본적인 투자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라북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라북도 이전과 관련된 각종 지원제도의 안내, 지방이전 정책의 홍보 및 이전에 관한 자문, 이전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공장설립 인·허가 등 행정절차 대행, 이전부지 선정 및 기존 공장매각 알선, 지자체, 정부부처 등 기업이전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체계를 구성한다.

다섯째,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 등 단기적인 지방이전 지원정책으로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지방 스스로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인프라 확충을 통한 장기적인 투자환경 개선사업의 우선 검토가 필요하고, 즉 고속교통 접근성,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금융, 정보, 유통, 물류 등 사업지원서비스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전라북도의 산업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기업이 전라북도 이전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회인프라 개선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교육환경의 질적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 우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지방대학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유치 기업의 사후관리서비스 운영

사후관리 서비스는 전북 지역에 유치된 기업을 전담자를 배정하여 분기별 방문을 통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전담자를 파견하여 정착 및 안정화의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본사, 공장의 증설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프로젝트매니저 중심의 유치체계 구축

전북의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one-stop 서비스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one-stop 서비스의 가장 큰 이점은 모든 절차와 단계를 짧은 기간 동안 투자가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편리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상 공장설립 및 투자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많은 부서들이 상호 연계가 되어 있어 회의를 소집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투자심의협의회의 인증 절차 등 복잡한 프로세스가 운영되고 있어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투자검토 단계에서부터 투자입지 및 기반 등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인·허가의 종류가 많고 여러 부서나 기관들로 분산되어 있어 접근 시간이 소요되며 소극적 자세로 일처리가 지연될 경우 심리적 피해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강력한 저항,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직적인 거부 행위 등으로 인하여 투자를 포기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가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입지 선택, 절차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들에게 지나친 규제나 요구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관리와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가가 사업을 고려하는 단계부터 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전담하여 투자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PM은 인·허가 업무를 대행 처리하고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기업유치 환경관리 시스템 정비

전라북도내에 위치한 기업들은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기업에 관련한 법적규제중 환경규제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환경규제 중에서 '폐기물 분야(65.8%)'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질분야(11.0%)',

소음・진동분야(8.2%)', '대기질분야(6.8%)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이유가 '까다로운 행정절차(56.9%)'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나친 지도단속(19.4%)', '높은 배출기준(6.9%)'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4년 10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100만달러 이상 투자한 47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환경규제 사례 실태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환경정책에 대한 비판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이 본격화된 70년대 중반이래로 꾸준히 제기되었다. 환경정책비판은 명령과 통제 위주로 되어 있는 초기 환경정책의 비효율성이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를 위한 각종 절차나 규정이 과도한 집행비용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연결된 다른 주장은 현행 환경규제가 과도하여 사회적인 손실이 크다는 주장이다. 환경규제의 수단이 비효율적인 기술규제에 의존한 탓도 있지만 환경질 목표치가 과도하거나 기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그 편익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규제완화 또는 규제개혁이 1980년대 이후 선진국의 보편적인 화두가 되었다. 각국은 신보수주의 물결과 함께 각종 규제완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물결에 있어서 환경정책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주요국가들은 환경규제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록 국가에 따라 접근방식과 강조점이 다르긴 하나, 모든 국가들이 지나친 환경규제 때문에 자국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환경관련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 의욕이 저해되어서는 안되며, 기업 역시 환경과 경제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제조업 중심의 보조금 지원 형태 탈피를 통한 유치영역 확대추진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을 위해 설정한 범위나 규모가 지나치게 크며 요구조건등도 현실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적합한 범위와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억원 이상이나 300억원 등

의 투자 금액과 고용인원도 200인 이상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기업유치에 있어 현실적인 적합성의 문제와 기업 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방안의 연구와 규모, 범위 등의 축소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나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은 기업 유치를 위한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제조업만을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산업의 변화에 적합한 서비스업과 영화산업,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으로 확대시키고, 공장에 한정되었던 유치 기업 대상을 물류시설, 연구소, 사업장, 대학 등의 부속시설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공장 위주의 유치 지원 정책을 타 지역의 모든 기업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기업 및 투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재정지원, 조세감면, 행정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복합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 방안 등은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매력적 요인들로 유치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업이 입주하고 공장이 신설될 경우 많은 현지인들이 이주하게 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생활환경 지원제도나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투자가들은 공장입지 대상 지역의 삶의 질, 교육 및 연구기관의 근접성, 문화기반시설 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민기, 2001: 113). 따라서 전북 지역의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서 생활환경 우위성 및 일정기간 동안의 무료 이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6. 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하더라도 투자자가 선호하는 전략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나 행정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의 유치 대상 기업으로 주로 첨단 산업이나 고도의 기술 수반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재

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 인센티브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치된 기업들이 자유스럽게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유치자유촉진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행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도 기술 수반 사업의 전략적 투자 유치에 있어 조세인센티브 또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보다 고도기술단지 등의 투자자유지역의 조성을 통한 인센티브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다 (Vallanchain & Satterthwaite, 1992).

기업유치자유지역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한 행정지원제도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투자금액의 20~30% 지원,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7~10년간 면제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행정지원제도만으로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근에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저렴한 임금과 풍부한 자원 등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점에서 차별화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인센티브의 제공과 더불어 규제나 불이익을 제거해주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전라북도 지역이 풍부한 인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전북을 R&D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투자하고 전북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산업과의 가치 사슬(value chain)를 형성하여 전북 지역에 입지하도록 클러스터 형성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7. 투자기업의 선택

첫째, 기업의 M&A형 투자보다는 공장신설형투자(greenfield investment)를 유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M&A형 투자는 기존의 공장시설 및 고용인원을 그대로 (오히려 인수 후에는 생산효율성을 위해 인원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인수하여 그 만큼 신규로 생산시설 및 고용창출에 대한 파급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특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정 산업개발, 즉 전북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육성을 유도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집중 유치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교육, 문화 등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별 특

성을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북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매력요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전북이 직접 외국인투자기업의 파트너가 되어 SOC프로젝트개발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활동이다. 도로, 교량, 항만 등 기초적인 사회간접자본은 물론 관광단지나 유통단지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개발사업도 투자유치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개발은 그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개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데 특히 주목하여할 분야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국내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7),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

김갑성 · 주성재 · 남기범(2003),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수요 추정", 대한지리학회지, 제 38권 3호, pp.363-374

김광석·박승록(1988),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변화와 그 요인의 분석", 산업연구원

김광석·홍성덕(1992),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동향과 그 결정요인", 한국개발연구원

김영수(2002), "지역산업의 생산성과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김헌민(2002), "광역자치단체의 집적경제와 산업생산성에 관한 연구 : 중분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 11권 1호, pp.207-230

류승안(2003),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과 우리의 대책", 국세청

박상우·김동주(2001), "수도권집중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국토연구원

박헌수·조규영 (2001),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외부효과 추정 분석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2004), "기업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한국제조업의 현황 분석"

산업자원부(2003),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서승환(2001), "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 및 그 결정요인", 『응용경제』, 제 3권 1호, pp.133-158.

이번송(2000), "수도권 시·군·구의 제조업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경제학연구』, 제48권 4호, pp.291-322.

이번송·홍성효(2001), "시·군·구별 제조업 생산성 성장 요인과 수도권집중 억제 정책의 효과", 『국제경제연구』, 제 7권 1호, pp.125-145.

이상호·김홍규(1996), "도시별 집적경제효과의 비교분석",『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8권 1호, pp.55-70.

이성근 외(2003), "경북지역의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 (재)테

크노파크
이영준·윤기향(1998), "우리나라 제조업의 지역생산성에 관한 연구와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이현주 · 이승현(2004), "경기도 접경지역의 경제구조변화와 기업의 입지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 7권 제2호, pp.203-225
전라북도(2003),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시행규칙"
전영재(2004),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추진방향",『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전략 심포지엄』, 전북발전연구원
조경두(2004), "산업단지 운영관리 문제점과 개선방향",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제도개혁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발표문
조근태 · 조용곤 · 강현수(2003),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조기현(2002), "산업별 집적경제와 외부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혜영(2004), "산업단지 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주한광 · 김승진(2001), "국내 외국인투자 현황과 정책 대응", 세계경제연구원
진영환 외(2003), "산업단지개발의 파급효과 및 개발방향", 국토개발연구원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김경환·박명호·손재영(2002),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 서강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2003), "환경 친화적 산업단지 구축방안"
한병섭 · 서민교(2005),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 제조법인 자회사의 공장입지 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 30권 제 3호, pp.101-127
홍성덕·김정호(1996),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의 장기적 변화 : 1967~93", 한국개발연구원

❑ 외국자료

Gort, M. and S. Klepper(1982), "Time Paths in the Diffusion of Product Innovations," Economic Journal 92, pp.630-653.
Han, Chin-Hee(2000), Entry, Exit and 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 Micro Evidence on Korean Manufacturi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olicy Study 2000-04

Harker, P.(1989), "The art and science of decision making :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Springer-Verlag Berlin-Heideberg.

Reynolds, S.(1988), “Plant Closing and Exit Behaviour in Declining Industries,” Economica 55, pp.493-503.Neumann, J. and O. Morgenstern,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6

Saaty, T.L(1980)., "The Analytic Hierachy Process", New York : McGraw-Hill

부 록

- 부록1. 전라북도 기업입지 수요조사
- 부록2. 전라북도 기업입지 선호도조사

▣부록 1

전라북도 기업입지 수요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희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와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전북지역에 기업을 이전하기 위한 제반정책 및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귀사의 입지와 관련된 고견을 듣고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이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협조 부탁드립니다.

설문 응답결과는 연구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2007년 2월

❑ 조사기관 :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전북발전연구원
❑ 담 당 자 : 연구위원 나상균 / 연구원 이준수
❑ 연 락 처 : ☎ 063-286-9217 / FAX 063-286-9206
❑ E-mail : nsg@jd.re.kr, jslee815@jd.re.kr

전라북도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작성방법

1. 질문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항목의 번호에 (○, ✓)하시면 됩니다.
2. 보기 중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귀하의 의견을 '기타' 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주관식 문항은 귀하의 생각을 응답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3. 응답개수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한 가지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현재 입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 1. 귀사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동・읍

문 2. 현재 귀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① 본사기능
② 생산기능
③ 연구개발 기능
④ 판매기능
⑤ 창고/물류기능

문 3. 귀사가 현재 위치에 입주한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① 항만, 공항, 철도역 등 교통 편리성
② 저렴한 분양가, 임대료
③ 지역연고
④ 기업 우호적인 지역환경(기업이미지, 자녀교육, 주거환경)
⑤ 연관산업 밀집
⑥ 판매시장 및 협력업체 접근성
⑦ 원자재 조달용이
⑧ 노동력 확보용이
⑨ 보조금 및 세제지원
⑩ 물류지원(공동 물류센터, 창고 등)
⑪ 기술지원(산학협동, 기술지원센터 등)
⑫ 기반시설(용수, 전력, 폐기물 처리 등) 사용용이
⑬ 기술 및 경영정보 취득 용이
⑭ 행정편의
⑮ 투자이익
⑯ 쾌적한 환경
⑰ 기타 :_____

문 4. 귀사의 현 입지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약간만족 ③ 보통 ④ 약간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문 4-1(문 4.의 ④, ⑤ 체크 해당). 만약 불만족스러운 부분과 그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불만족 스러운 부분 :

- 대 책 :

문 5. 귀 사가 현 입지에 입주할 때 관할 지자체가 지원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구체적인 내용 :_____)

귀사의 향후 입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 6. 귀사는 향후 회사의 이전을 포함하여 사업장, 연구소 등을 신설 또는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②아니오

문 6-1. 이전, 신설 또는 확장 계획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모든 것을 골라주십시오.

① 현 입지부지의 협소
② 교통환경 열악
③ 임대료 절감
④ 동종업종 밀집지역지역을 찾아서
⑤ 회사의 이미지 제고
⑥ 인력확보의 용이성
⑦ 물류비 절감
⑧ 주변환경 변화
⑨ 생산증대
⑩ 자재조달의 용이성 확보
⑪ 시장개척
⑫ 기반시설 사용 용이

⑬ 환경규제 및 민원

⑭ 기타 : _____

문 6-2. 이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입지후보지는 어떤 형태를 원하십니까?

① 계획입지(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②개별입지

문 6-3. 문6-2에서 <u>계획입지(기업도시, 산업단지 등)</u>를 원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설립절차 간편

②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③ 환경규제 및 민원으로 개별입지 확보 어려움

④ 세제,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책 확보

⑤ 원료 획득 및 계열 생산체계 구축이 가능

⑥ 기타 :_____

문 6-4. 문6-2에서 <u>개별입지를</u> 원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원하는 시기, 장소, 적정규모의 공장부지 확보

② 토지 및 공장의 처분이 용이

③ 자산 증식 효과

④ 용지취득 비용이 계획입지보다 저렴

⑤ 임금, 노사분규 등에 대한 타 기업의 영향 적음

⑥ 현행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의 지원책 미비

문 6-5. 귀사의 이전/신설/확장 계획이 있을 경우 입주할 주요 대상시설은 무엇입니까?

① 공장

② 판매시설

③ 연구소

④ 에너지 비축

⑤ 물류

⑥ 기타 : _____

문 6-6. 귀사가 희망지역으로 회사의 이전/신설/확장할 경우 가장 적정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2007년 내
② 2008년
③ 2009년
④ 2010년
⑤ 2011년
⑥ 2012년 이후

문 6-7. 귀사의 이전/신설/확장할 경우 면적은 어느정도를 원하십니까?

토지 : _____평, 건물 : _____평

문 7. 귀사는 회사 이전부지 선정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를 골라주십시오.

항 목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	매우중요
• 항만, 공항, 철도역 등 교통 및 물류편리성					
• 저렴한 분양가 및 임대료					
• 지역연고					
• 기업 우호적인 지역환경(교육, 주거 포함)					
• 연관산업 밀집					
• 판매시장 및 협력업체 근접성					
• 원자재 조달의 용이성					
•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					
• 보조금 및 세제지원					
• 물류지원(공동 물류센터, 창고 등)					
• 기술지원(산학협동, 기술지원센터 등)					
• 기반시설(용수, 전력, 폐기물 처리 등)					
• 기술 및 경영정보 취득용이					
• 행정편의					
• 투자이익					
• 쾌적한 환경					

문 8. 귀사가 회사의 이전/신설/확장 계획이 있다면 어느 곳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계획이 없다면 희망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하는 지역이 여러 곳 이라면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복수로 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산업단지명)

2순위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산업단지명)

3순위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산업단지명)

귀사가 생각하시는 전라북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 9.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대규모 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고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생각하시기에 다음 항목들에 대해 전라북도의 환경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	매우중요
• 항만, 공항, 철도역 등 교통 및 물류편리성					
• 저렴한 분양가 및 임대료					
• 지역연고					
• 기업 우호적인 지역환경(교육, 주거 포함)					
• 연관산업 밀집					
• 판매시장 및 협력업체 근접성					
• 원자재 조달의 용이성					
•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					
• 보조금 및 세제지원					
• 물류지원(공동 물류센터, 창고 등)					
• 기술지원(산학협동, 기술지원센터 등)					
• 기반시설(용수, 전력, 폐기물 처리 등) 사용용이					
• 기술 및 경영정보 취득 용이					
• 행정편의					
• 투자이익					
• 쾌적한 환경					

문 10. 귀사가 전라북도에 입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전라북도에서 가장 필요한 인프라는 어떤 것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①공 항 ②항 만 ③물류 및 교통의 편리성(도로・철도)

④동력 ・ 에너지 관련시설 ⑤통신시설

문 11. 귀사가 전라북도에 입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전라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지원책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_____

_____

마지막으로 귀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문 12. 귀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_____

문 13. 귀사의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_____억원

문 14. 귀사의 종업원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_____명

문 15. 귀사의 부지면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건물 :연 _____평, 대지 : _____평

문 16. 귀사의 시설용지의 매입가 또는 임대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매입 :평당_____원, 임대료-보증금:_____ -_____만원, 월세 :_____만원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전라북도 기업입지 선호도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희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와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전북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입지관련 선호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귀하의 기업입지 환경에 관한 고견을 듣고 보다 나은 기업환경조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협조 부탁드립니다.

설문 응답결과는 연구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2007년 2월

❑ 조사기관 :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전북발전연구원

❑ 담 당 자 : 연구위원 나상균 / 연구원 이준수

❑ 연 락 처 : ☎ 063-286-9217 / FAX 063-286-9206

❑ E-mail : nsg@jd.re.kr, jslee815@jd.re.kr

전라북도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작성방법

1. 질문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항목의 번호에 (○, √)하시면 됩니다.
2. 보기 중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귀하의 의견을 '기타' 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주관식 문항은 귀하의 생각을 응답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3. 응답개수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한 가지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전라북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 1.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대규모 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고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 항목들에 대해 전라북도의 환경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중요	매우중요
• 항만, 공항, 철도역 등 물류 및 교통편리성					
• 저렴한 분양가 및 임대료					
• 지역연고					
• 기업 우호적인 지역환경(교육, 주거 포함)					
• 연관산업 밀집					
• 판매시장 및 협력업체 근접성					
• 원자재 조달의 용이성					
•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					
• 보조금 및 세제지원					
• 물류지원(공동 물류센터, 창고 등)					
• 기술지원(산학협동, 기술지원센터 등)					
• 기반시설(용수, 전력, 폐기물 처리 등) 사용용이					
• 기술 및 경영정보 취득용이					
• 행정편의					
• 투자이익					
• 쾌적한 환경					

문 2. (이전한 회사의 경우) 현 입지에 입주할 때 관할 지자체가 지원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문 3.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전라북도가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지원책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문 4. 귀하께서 기업이 전라북도에 입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전라북도에서 가장 필요한 인프라는 어떤 것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① 공 항 ② 항 만 ③ 물류 및 교통편리성(도로, 철도)
④ 동력 · 에너지 관련시설 ⑤ 통신시설

이전기업의 구성인프라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응답하시기 전에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 응답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 작성요령

설문작성은 기업이전을 위한 두 개의 평가부문 A와 B중에서 어느 평가부문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1~9점 척도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전을 위해 제공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물류의 편이성(A)' 이 '저렴한 분양가(B)'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중요" 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좌측의 ⑤" 에 체크(√)하시면 됩니다(단, 각 항목별로 하나씩만 표기해 주세요).

평가표시의 예)

평가부문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부문(B)
· 물류의 편이성	⑨	⑧	⑦	⑥	√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저렴한 분양가

평가부문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부문(B)
· 물류의 편이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저렴한 분양가
· 물류의 편이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환경 (교육, 주거포함)
· 물류의 편이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판매시장/협력업체 근접성
· 물류의 편이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생산환경(원자재조달, 노동력확보 용이성)
· 물류의 편이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보조금 및 세제지원
· 물류의 편이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기술지원(산학협동, 기술지원센터, 경영정보 등)
· 물류의 편이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기반시설(통신, 전력, 용수, 폐기물 처리 등)
· 물류의 편이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각종 행정편의 지원
· 저렴한 분양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환경 (교육, 주거포함)
· 저렴한 분양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판매시장/협력업체 근접성
· 저렴한 분양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생산환경(원자재조달, 노동력확보 용이성)
· 저렴한 분양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보조금 및 세제지원
· 저렴한 분양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기술지원(산학협동, 기술지원센터, 경영정보 등)
· 저렴한 분양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기반시설(통신, 전력, 용수, 폐기물 처리 등)
· 저렴한 분양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각종 행정편의 지원
·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교육, 주거포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판매시장/협력업체 근접성
·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교육, 주거포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생산환경(원자재조달, 노동력확보 용이성)
·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교육, 주거포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보조금 및 세제지원
·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교육, 주거포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기술지원(산학협동, 기술지원센터, 경영정보 등)
·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교육, 주거포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기반시설(통신, 전력, 용수, 폐기물 처리 등)
·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교육, 주거포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각종 행정편의 지원

평가부문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부문(B)
· 판매시장/협력업체 근접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생산환경(원자재조달, 노동력확보 용이성)
· 판매시장/협력업체 근접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보조금 및 세제지원
· 판매시장/협력업체 근접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기술지원(산학협동, 기술지원센터, 경영정보 등)
· 판매시장/협력업체 근접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기반시설(통신, 전력, 용수, 폐기물 처리 등)
· 판매시장/협력업체 근접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각종 행정편의 지원
· 생산환경(원자재조달, 노동력확보 용이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보조금 및 세제지원
· 생산환경(원자재조달, 노동력확보 용이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기술지원(산학협동, 기술지원센터, 경영정보 등)
· 생산환경(원자재조달, 노동력확보 용이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기반시설(통신, 전력, 용수, 폐기물 처리 등)
· 생산환경(원자재조달, 노동력확보 용이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각종 행정편의 지원
· 보조금 및 세제지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기술지원(산학협동, 기술지원센터, 경영정보 등)
· 보조금 및 세제지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기반시설(통신, 전력, 용수, 폐기물 처리 등)
· 보조금 및 세제지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각종 행정편의 지원
· 기술지원(산학협동, 기술 지원센터, 경영정보 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기반시설(통신, 전력, 용수, 폐기물 처리 등)
· 기술지원(산학협동, 기술 지원센터, 경영정보 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각종 행정편의 지원
· 기반시설(통신, 전력, 용수, 폐기물 처리 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각종 행정편의 지원

다음 설문은 이전기업의 좋은 환경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프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개의 평가부문 A와 B중에서 어느 평가부문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1~9점 척도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평가부문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부문(B)
· 공항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항만
· 공항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교통 및 물류의 편리성(도로, 철도)
· 공항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동력·에너지 관련시설
· 공항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통신시설
· 항만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교통 및 물류의 편리성(도로, 철도)
· 항만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동력·에너지 관련시설
· 항만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통신시설
· 교통 및 물류의 편리성(도로, 철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동력·에너지 관련시설
· 교통 및 물류의 편리성(도로, 철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통신시설
· 동력·에너지 관련시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통신시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이전대상기업의 수요 및 실태조사

발 행 인 | 박 성 일

발 행 일 | 2007년 3월

발 행 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전화: (063)286-9201 팩스: (063)286-9206

http://www.jd.re.kr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